

국내 아세안 인식 조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Social Big Data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ASEAN in Korea





국내 아세안 인식 조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Social Big Data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ASEAN in Korea

국내 아세안 인식 조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Social Big Data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ASEAN in Korea

펴낸날 2018년 2월 28일

펴낸곳 한-아세안센터

펴낸이 원지현 모니카돌로스 이수지 김현지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8층)

전 화 02.2287.1147

팩 스 02.2287.1160

디자인 Linear Collective

ISBN 979-11-88409-16-7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책의 글이나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아세안센터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국내 아세안 인식 조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Social Big Data Analysis on the Perception of ASEAN in Korea



ASEAN-KOREA CENTRE



목차

| | | |
|------------------------|---|--|
| 발간사 | | 08 |
| 1.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과 방법론 | 1.1. 조사 배경과 목적 1.2. 분석 방법 1.3. 분석 범위 | 12 12 14 |
| 2. 조사 결과 및 분석 시사점 | 2.1. 동남아와 아세안 인식 비교 2.1.1.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주요 연관어 2.1.2.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주요 이슈 2.1.3.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감성 표현어 2.2. 한-아세안 관계 인식 2.3. 아세안 국가별 인식 2.4. 한아세안센터 활동 관련 담론의 특징 | 18 22 25 30 34 39 42 |
| 3. 결론: 분석 의의 및 제언 | | 48 |

첨부. 동남아와 아세안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 | | |
|---------------------------|---|----------------------|
| 1. 동남아 vs 아세안 키워드 랭킹 분석 | 1.1. 정치적 측면(정치·안보) 1.2. 경제적 측면(경제·무역·투자) 1.3. 관광적 측면(관광·여행) 1.4. 사회적 측면(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52 54 56 58 |
| 2. 동남아 vs 아세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2.1. 정치적 측면(정치·안보) 2.2. 경제적 측면(경제·무역·투자) 2.3. 관광적 측면(관광·여행) 2.4. 사회적 측면(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60 61 62 63 |
| 3. 동남아 vs 아세안 감성 분석 | 3.1. 정치적 측면(정치·안보) 3.2. 경제적 측면(경제·무역·투자) 3.3. 관광적 측면(관광·여행) 3.4. 사회적 측면(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64 65 66 67 |



표 목차

| | |
|--------------------------------------|----|
| [표 1 데이터 수집 사이트] | 14 |
| [표 2 키워드 랭킹 분석 : 정치·안보] | 22 |
| [표 3 키워드 랭킹 분석 : 경제·무역·투자] | 23 |
| [표 4 키워드 랭킹 분석 : 관광·여행] | 24 |
| [표 5 키워드 랭킹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24 |
| [표 6 “차별”과 “차이” 관련 키워드] | 29 |
| [표 7 감성분석 : 정치·안보] | 30 |
| [표 8 감성분석 : 경제·무역·투자] | 31 |
| [표 9 감성분석 : 관광·여행] | 32 |
| [표 10 감성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33 |
| [표 11 “한-아세안 관계” 문서 관련 연관 키워드] | 35 |
| [표 12 “한-아세안 관계” 문서 관련 키워드 랭킹 : 연도별] | 36 |
| [표 13 아세안 10개국 전체 감성 긍·부정 주요 여론 분석] | 40 |
| [표 14 한-아세안센터 페이스북 확산 문서 : 연도별] | 43 |
| [표 15 동남아 키워드 랭킹 분석 : 정치·안보] | 52 |
| [표 16 아세안 키워드 랭킹 분석 : 정치·안보] | 53 |
| [표 17 동남아 키워드 랭킹 분석 : 경제·무역·투자] | 54 |
| [표 18 아세안 키워드 랭킹 분석 : 경제·무역·투자] | 55 |
| [표 19 동남아 키워드 랭킹 분석 : 관광·여행] | 56 |
| [표 20 아세안 키워드 랭킹 분석 : 관광·여행] | 57 |
| [표 21 동남아 키워드 랭킹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58 |
| [표 22 아세안 키워드 랭킹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59 |



그래프 목차

| | |
|----------------------------------|----|
| [그래프 1 동남아 및 아세안 문서량 차이] | 18 |
| [그래프 2 연도별 소셜 트렌드 : 동남아] | 18 |
| [그래프 3 연도별 소셜 트렌드 : 아세안] | 19 |
| [그래프 4 동남아와 아세안의 채널별 문서 점유율] | 19 |
| [그래프 5 동남아와 아세안의 채널별 긍·부정 비율] | 20 |
| [그래프 6 동남아의 주요 속성별 포지셔닝맵] | 20 |
| [그래프 7 아세안의 주요 속성별 포지셔닝맵] | 21 |
| [그래프 8 “차별”과 “차이” 키워드 언급량 트렌드] | 29 |
| [그래프 9 “한-아세안 관계” 관련 키워드 언급량 비율] | 34 |
| [그래프 10 “발전” 키워드 언급량 트렌드] | 34 |
| [그래프 11 아세안 10개국 국가별 포지셔닝맵] | 39 |
| [그래프 12 한-아세안센터 연도별 소셜 트렌드] | 42 |
| [그래프 13 한-아세안센터 사업별 포지셔닝맵] | 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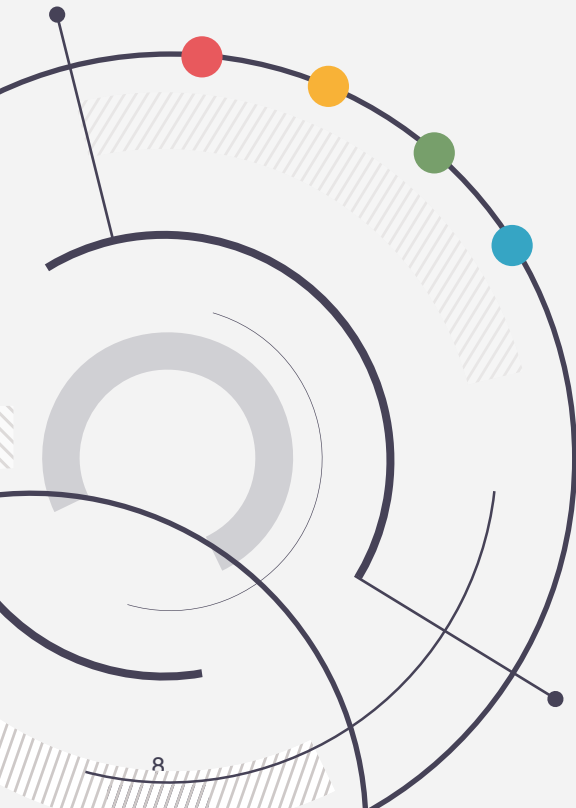




그림 목차

| | |
|---|----|
| [그림 1 분석 프로세스] | 13 |
| [그림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정치·안보] | 25 |
| [그림 3 아세안 연도별 문서 다량작성자] | 26 |
| [그림 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경제·무역·투자] | 24 |
| [그림 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관광·여행] | 27 |
| [그림 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28 |
| [그림 7 동남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동남아 이미지] | 29 |
| [그림 8 아세안 연관 검색어 및 분석 결과 키워드 비교 분석] | 38 |
| [그림 9 한-아세안센터 연도별 문서 다량작성자] | 42 |
| [그림 10 동남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정치·안보] | 60 |
| [그림 11 아세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정치·안보] | 60 |
| [그림 12 동남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경제·무역·투자] | 61 |
| [그림 13 아세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경제·무역·투자] | 61 |
| [그림 14 동남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관광·여행] | 62 |
| [그림 15 아세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관광·여행] | 62 |
| [그림 16 동남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63 |
| [그림 17 아세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63 |
| [그림 18 동남아 감성분석 : 정치·안보] | 64 |
| [그림 19 아세안 감성분석 : 정치·안보] | 64 |
| [그림 20 동남아 감성분석 : 경제·무역·투자] | 65 |
| [그림 21 아세안 감성분석 : 경제·무역·투자] | 65 |
| [그림 22 동남아 감성분석 : 관광·여행] | 66 |
| [그림 23 아세안 감성분석 : 관광·여행] | 66 |
| [그림 24 동남아 감성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67 |
| [그림 25 아세안 감성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6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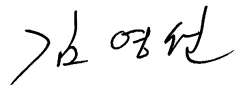
2018년, 한-아세안 관계는 새로운 지평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4강과의 관계 수준으로 격상한다는 ‘신남방정책’을 천명함에 따라, 한-아세안 관계는 한국 외교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한-아세안 관계가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지금, 아세안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을까요? 한-아세안센터는 국민들의 대아세안, 그리고 대동남아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 미래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한 지침으로 삼기 위해 <국내 아세안 인식 조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펴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한-아세안센터가 발간한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은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의 ‘상호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였습니다. 이에 이번 <국내 아세안 인식 조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웹’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방대한 수준의 빅데이터 조사와 분석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국내 웹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발생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많이 언급하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아세안 관련 키워드들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수집된 문서의 변화 추이를 파악, 동남아시아나 아세안에 대한 인지도 증감여부를 파악하였고, 수집된 문서 내에서 발생한 동사(서술어)를 추출, 동남아시아 및 아세안에 대한 긍·부정 의견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아세안 미래 관계를 위한 고무적인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아세안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경제 협력 면에서는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고, 사회·문화 협력 면에서도 지속적인 문화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적인 협력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상호 이익과 균형을 모색하는 공영의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한-아세안 관계를 진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로 이어 나가기 위해, 한-아세안센터는 앞으로도 한국과 아세안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도 분석을 계속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정부와 시민사회, 국민 모두가 촘촘히 연결될 수 있도록, 알찬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김영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과 방법론

1. 소셜 빅데이터 분석의 목적과 방법론

1.1. 조사 배경과 목적

본 보고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인의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식에 대한 현황 및 이슈를 조사, 분석한 결과물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 파트너이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약 218만 명 중 약 24%(약 52만 명)인 아세안 국적 인구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이 여러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진정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아세안 인식 수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해법과 미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본 조사는 한국인의 아세안 인식을 파악하여 한국과 아세안 사회에 알리고, 나아가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주요 4대 협력 분야별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상생 관계 구축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방안 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2. 분석 방법

국내 아세안 인식 조사를 위한 소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SKT 소셜 분석 플랫폼 Smart Insight를 활용하였다. 2012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웹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 발생된 텍스트 기반의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소셜 텍스트 빅데이터 조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아세안” 키워드로 국내 포털 사이트 검색 시 국민들이 관련 문서를 작성한 문서량과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조사 결과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아세안은 동남아시아(동남아) 10개국의 ‘지역 협력체’로서 인식되고 있음
- 일반 국민들의 “아세안”에 대한 인지도가 “동남아”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소셜 정보 검색 시 평소에 친숙하게 인지하고 있는 키워드를 검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세안” 키워드의 비교 대상으로 “동남아” 키워드 선정 필요)
- “아세안”을 언급하는 문서의 약 75%가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음
-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경제·관광·문화 제반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 중인 것으로 드러남

사전 조사 결과에 따라 본 조사를 설계하였다. 분석 목적에 의해 설계된 주제 키워드인 아세안, 동남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이 포함된 문서들을 웹과 SNS상에서 수집하였다.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기본 기능인 **문서 추이 변화 분석**(Buzz Trend Analysis), **키워드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문서 추이 변화 분석**(Buzz Trend Analysis)이란 수집된 모든 문서량의 시기별(연/월/일) 증감 여부 등 문서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는 분석이다.
- **키워드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키워드 랭킹 분석**은 포괄적인 분석 방법이며 분석 주제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명사 키워드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하여 상위 빈출 키워드 리스트 및 트렌드 파악이 가능하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보다 선별적인 분석 방법에 속하는데, 주요 핵심 키워드의 연관 키워드들을 추출함으로써 상세 이슈 파악 및 내용 분석을 수행한다.
-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은 수집된 문서 내에서 발생한 동사(서술어)를 추출하여 긍·부정 의견을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당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상위 개념인 “동남아”, “아세안”, “한-아세안” 주제 영역의 문서 수집 후 수집된 문서 내에서 유의미한 키워드 및 감성 사전을 구축하였다. 해당 사전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키워드의 Raw Data를 추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1 분석 프로세스]



1.3. 분석 범위

소셜에 존재하는 279개 채널은 257개 언론 매체를 비롯해 주요 SNS, 블로그, 카페, 게시판 및 커뮤니티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대상으로 텍스트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사이트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데이터 수집 사이트]

| 채널 | 수집 사이트 명 |
|------------------|--|
| 뉴스 | 온라인 뉴스 사이트 257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연합뉴스 ...) |
| 카페 |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
| SNS ¹ | 트위터 |
|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이글루스, 티스토리 |
| 게시판 | MLBPARK_BULLPAN, youtube, 네이버 지식인, 네이트톡, 다음 TIP, 다음 미즈넷_생 활속에피소드, 디스이즈게임-커뮤니티/자유게시판, 디시인사이드_갤러리, 루리 웹 - 커뮤니티 사회/정치/경제 정보, 뷰티블, 뽀뽀, 세티즌, 시코_미니기기게시판, 오늘의유머, 인벤 |

상기 수집 사이트를 대상으로 아세안, 동남아시아, 한-아세안 관계 및 한-아세안센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관련어들을 선정하였고, 총 4개 주제분야(정치·경제·관광·문화)의 키워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¹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소셜 텍스트 수집 제약으로 인해 SNS 채널은 트위터로 국한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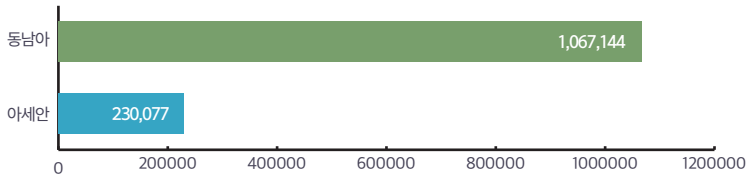
조사 결과 및 분석 시사점

2. 조사 결과 및 분석 시사점

2.1. 동남아와 아세안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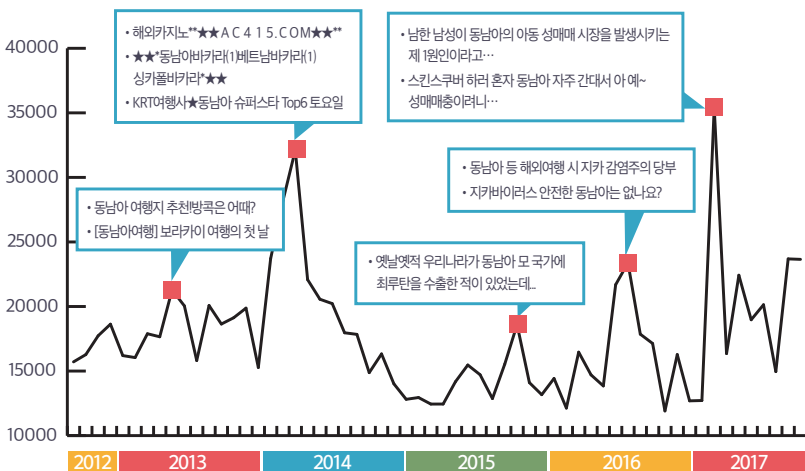
아세안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많이 언급하는 동남아 인지도를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셜 내에 생성되고 있는 동남아와 아세안 관련 문서량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세안 대비 동남아 문서량은 약 4.5배 많았다. 아세안 문서량이 적은 이유는 아세안이라는 주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동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아세안은 특정 기관, 단체, 사람 등 관계자들만의 커뮤니티로 인지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래프 1 동남아 및 아세안 문서량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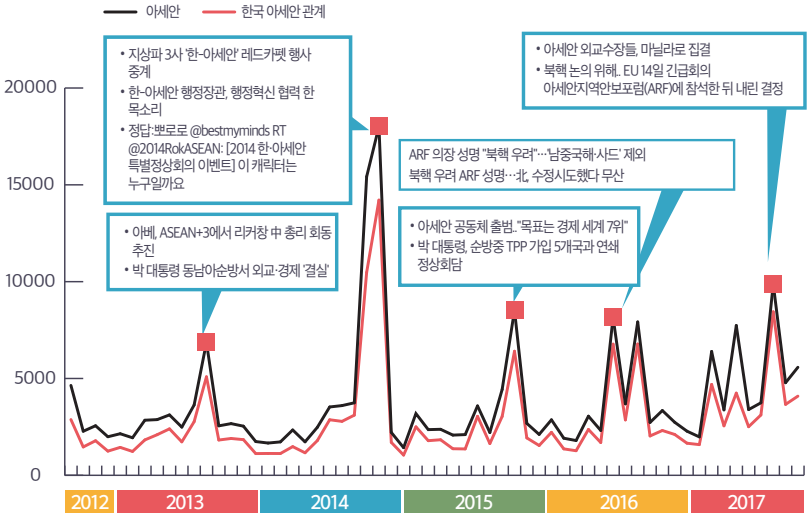
동남아와 관련하여서는 총 1,067,144건, 연평균 약 18만건의 문서가 발생하였다. 동남아 국가 명소와 먹거리, 여행 후기들이 매년 다량 생성되고 있었다. 연도마다 발생한 이슈(동남아 유희/전쟁 무기/지카 바이러스/성매매 등)로 인해 특정 시점에 문서량이 급증하는 트렌드를 보였다.

[그래프 2 연도별 소셜 트렌드: 동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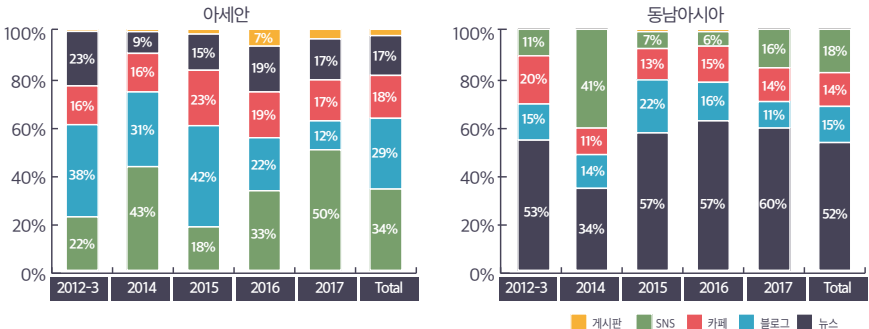
아세안 및 한-아세안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총 230,077건, 연평균 약 4만6천건의 문서가 발생하였다. 매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공동체·협의체 활동과 관련하여 문서량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였다.

[그래프 3 연도별 소셜 트렌드: 아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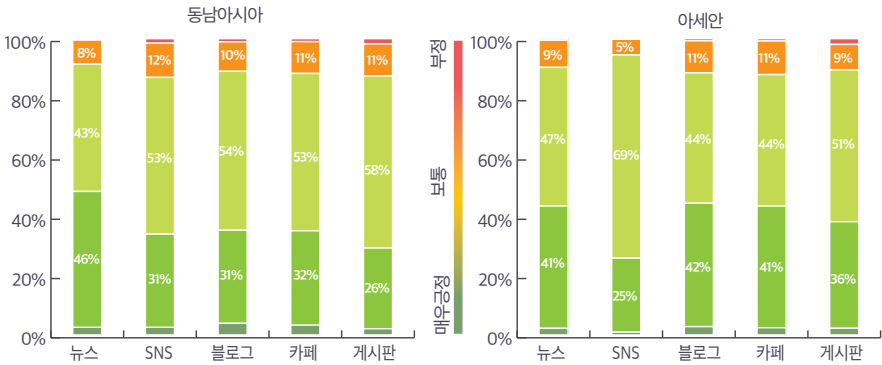
동남아와 아세안 관련 문서가 발생하는 채널 점유율에도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동남아의 경우 실제 국민들의 개인 계정 활용형인 SNS와 블로그 채널에서 63%의 문서가 발생하였고, 아세안은 대중 매체 채널인 뉴스에서만 52%의 문서가 생성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동남아라는 주제 키워드가 친숙하고, 다양한 관심거리가 많아 개인 소셜 공간에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아세안은 언론 매체에 의존적이며 타채널 모두 뉴스 보도 자체를 다수 인용, 스크랩하는 경향이 있었다. 언론 매체에 의존적인 것은 노출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거나 담론의 공진화(coevolution) 측면에서는 한계성을 지닌다.

[그래프 4 동남아와 아세안의 채널별 문서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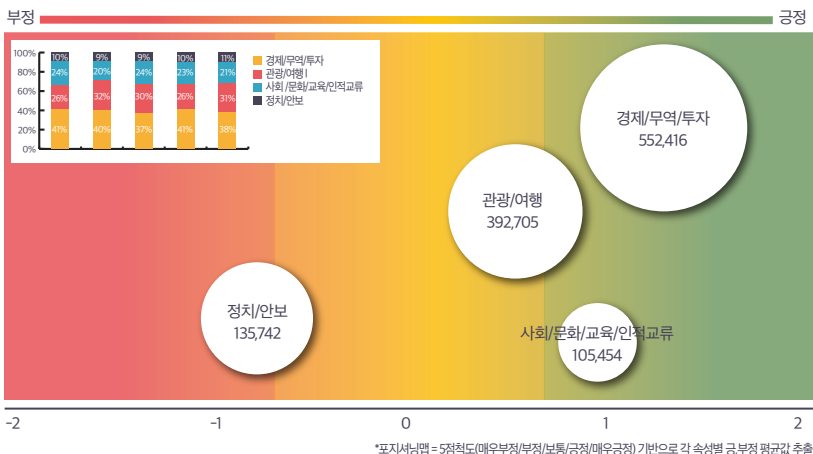
이어서 동남아와 아세안 관련 문서의 채널별 긍·부정 점유율을 살펴보았다. 동남아 관련 문서의 경우 뉴스 채널에서 긍정 문서 점유율이 약 50%였고, 그 다음 블로그 및 카페 채널이 35%였다. 아세안 관련 문서의 경우 블로그 채널에서 긍정 점유율이 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뉴스 채널이 43%를 기록했다.

[그래프 5 동남아와 아세안의 채널별 긍·부정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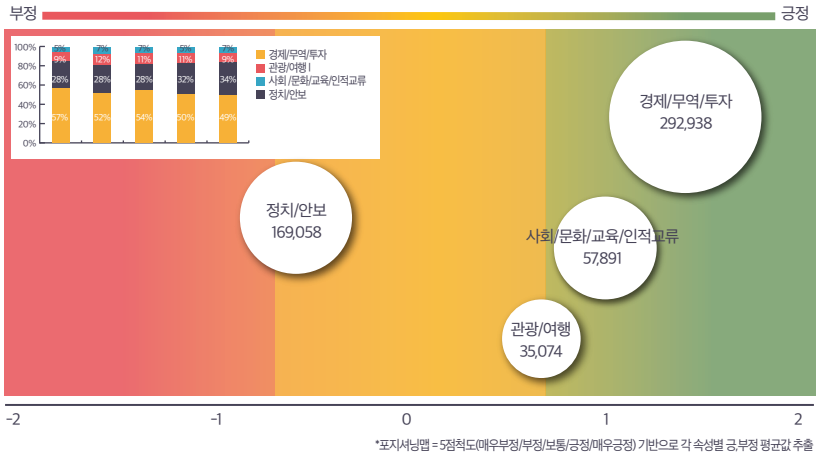


분석 결과에서 언급되는 주요 제반 분야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남아 관련 문서의 주요 속성별 현황은 연평균 경제 39%, 관광 28%, 정치 23%, 문화 10% 순이고, 아세안 관련 문서의 주요 속성별 현황은 연평균 경제 53%, 정치 30%, 관광 10%, 문화 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남아와 아세안 관련 분석 결과에서 모든 속성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남아와 아세안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긍정 문서의 주요 내용은 모두 관광 산업과 연관이 있었다. 이는 한류의 큰 인기로 인한 국내 관광 산업 홍보, 동남아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박원순 서울 시장의 관광 시장 다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약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치분야 속성에는 동남아와 아세안 공통적으로 전쟁, 분쟁, 핵개발 등 인류 평화 지지를 위해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그래프 6 주요 속성별 포지셔닝맵 : 동남아]



[그래프 7 주요 속성별 포지셔닝맵 : 아세안]



동남아 관련 분석 결과를 통해 관광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세계 인구의 23%인 16억명에 달하는 동남아 및 중동 무슬림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내용에 긍정 표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도실 설치, 할랄푸드 전문점 오픈 등 종교와 관광을 융합한 서비스 관련 내용이었다. 또한 최근 동남아 단체 관광객을 타깃으로 여행사 및 가이드 수수료가 과도하게 포함되는 것에 불만이 높아지는 부분과 동남아 관광객 수는 증가 중이지만 숙박 시설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다소 부정적인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측에서 관련 제도 개정, 동남아 단체 및 개별 관광객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 공급의 필요성 인지 등 긍정적인 대안들을 제시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안 관련 분석 결과에서는 대부분 연도별로 꾸준히 개최되는 아세안의 활동과 연관된 국내 행사 내용에서 긍정 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4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2017년 ‘아세안 50주년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한 음식축제, 사진전, 북콘서트, 강좌시리즈 등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 등은 주최 기관과 참여자 입장에서 모두 긍정적인 표현이 발생하였다. 특히 블로그 채널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음식 관련 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람들이 아세안 국가별로 이색적인 식문화를 접하며 개인의 새로운 취향을 알아 갈 수 있는 경험이 되어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남아와 아세안 인식 비교를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주요 4대 분야 (①정치·안보, ②경제·무역·투자, ③관광·여행, ④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를 분류해 보았다.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주요 연관어, 주요 이슈, 감성 표현어에서 각각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1.1.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주요 연관어²: 포괄적 접근 조사

[표 2 키워드 랭킹 분석 : 정치·안보]

| 동남아 관련 | 공통 | 아세안 관련 |
|---|--|---|
| 전쟁 식민지 최루탄 목숨 테러 군대 무기 국무부 중국정부 보복 | 사드 미사일 정부 대통령 한반도 정상회의 정상회담 동아시아 통일 시진핑 | 아세안지역안보포럼 특별정상회의 APEC ARF 안보 사드배치 대북 북핵 도발 김정은 |

정치·안보

동남아와 아세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는 “정부/대통령/한반도/정상회의·회담/통일/미사일” 그리고 “사드”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다. 이를 통해 동남아와 아세안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 사드 갈등 및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국 다변화를 꾀하여 동남아 시장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중국, 동남아 및 아세안이 함께 언급된 문서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동남아 관련 조사에서는 “전쟁/식민지/목숨/군대/무기/최루탄/살상용/국무부” 등의 키워드가 발생하였다. 이는 과거 동남아의 역사와 한국 및 동남아 국 민주 항쟁 시 발생한 무기나 인명 피해에 대한 정보 공유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 동남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시리아 내전과 IS의 테러가 지속적으로 동남아를 위협하는 점, 관련 무기 정보 등이 한국에서도 이슈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나 보복 키워드 관련해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국과 동남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급이 확인되었다.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는 동남아 관련 조사에서와 다르게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G20”의 언급이 높았다. 이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세계 선진국 정상들이 특정 목적을 가진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관계 속 집단별 입장을 표명하고, 논의되는 의제

²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 각 속성별 빈출한 상위 10위 키워드를 비교한 내용으로 첨부 [표 15~22] 참조

등에 관심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 “대북/북핵/도발/김정은/안보” 키워드 발현 빈도가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이는 아세안 회원국이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 도발에 대한 우려 중이며, 한국 및 아세안 회원국 모두 각 국가 안보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표 3 키워드 랭킹 분석 : 경제·무역·투자]

| 동남아 관련 | 공통 | 아세안 관련 |
|--------|-----|--------|
| 공장 | 발전 | FTA |
| 시설 | 기업 | 자유무역협정 |
| 시스템 | 진출 | 무역 |
| 매출 | 수출 | 교역 |
| 금융 | 수입 | 경제협력 |
| 삼양 | 투자 | 인프라 |
| 페이스북 | 브랜드 | APEC |
| 네이버 | 자동차 | TPP |
| 자원 | 인구 | GDP |
| 소비 | 산업 | RCEP |

경제·무역·투자

동남아와 아세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는 “진출/수출·입/투자/자동차/브랜드/인구” 등 이었다. 이는 세계 3위 인구 규모를 보유한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아세안 경제 교류 시 한국의 자동차, 화장품 제조 산업이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동남아 관련 조사에서는 한국의 대동남아 수출이 자동차 산업에 의존했지만, 최근에는 게임, 식품 산업 등으로 수출 산업 트렌드가 변화,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는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교역 규모와 아세안 국가의 낙후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게 나타났다.

[표 4 키워드 랭킹 분석 : 관광·여행]

| 동남아 관련 | 공통 | 아세안 관련 |
|--------|------|--------|
| 동남아여행 | 숙소 | 순방 |
| 패키지 | 호텔 | 기념 |
| 투어 | 버스 | 비행 |
| 특가항공권 | 차량 | 비자 |
| 후기 | 자동차 | 선박 |
| 쇼핑 | 항공기 | 철도 |
| 추억 | 비행기 | 항공 |
| 성매매 | 대한항공 | 승용차 |
| 유홍업소 | 항공권 | 고속철 |
| 포르노 | 관광객 | 지하철 |

관광·여행

동남아와 아세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는 “숙소/이동수단/관광객” 등 이었다.

동남아 관련 조사에서는 실제 동남아 국가들의 여행 후기, 정보 공유가 대다수였다. 동남아의 저렴한 물가, 현지 음식에 대한 긍정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 하지만 동남아 관광이 성매매 여행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생성되었고, 이에 자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며 부정 여론이 확산되었다.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는 “순방/선박/철도” 등이 키워드로 드러났다. 실제 일반 국민들의 여행에 대한 후기보다 한국 국가 정상 및 특사들의 아세안 국가 순방 관련 내용이 대다수였다. 선박/철도 키워드는 동남아 관련 조사에서 나타났던 여행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적 의미가 아니었다. 아세안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구축 시 원활한 교류 및 인적 교류를 위해 언급되는 진출 산업, 투자 품목들에 대한 언급이었다.

[표 5 키워드 랭킹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동남아 관련 | 공통 | 아세안 관련 |
|---------|-----|--------|
| 요리 | 한류 | 교류 |
| 과일 | 문화 | 포럼 |
| 커피 | 역사 | 세미나 |
| 맥주 | 전통 | 공연 |
| 레스토랑 | 영화 | 축제 |
| 커리불닭볶음면 | 음식 | 아세안영화제 |
| 매운맛 | 식품 | 음식축제 |
| 노래 | 이벤트 | 국제관광전 |
| 번역 | 게임 | 전시회 |
| 올림픽 | 교육 | 무료입장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동남아와 아세안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는 “음식/문화/역사/전통/한류/영화/게임/교육” 등 이었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이 아세안 국가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적 교류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남아 국가별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최근엔 동남아에 수출하여 높은 인기를 끌었던 한국 식품 기업의 커리불닭볶음면이 국내에도 출시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동남아 한류 팬들과 한국 연예인의 팬미팅, 문화적 교류에 대한 언급도 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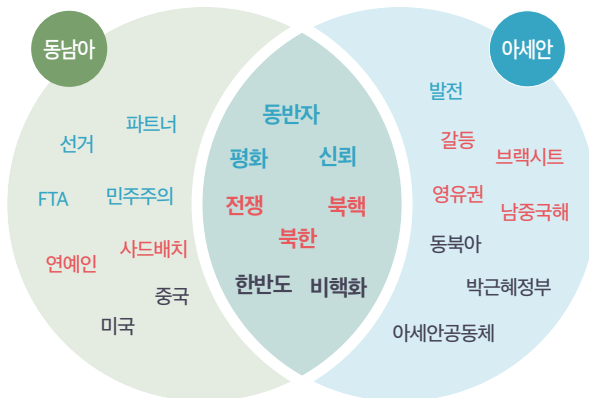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 돋보였던 키워드는 “아세안영화제/음식축제/국제관광전”이었다. 특히, 2014년 개최된 아세안영화제가 큰 호응을 얻었다. 아세안의 국가별 현지 분위기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간접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아세안 음식축제 관련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도 드러났다.

2.1.2.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주요 이슈³: 선별적 접근 조사

정치·안보

동남아 및 아세안에서 공통적으로 “동반자/신뢰/평화/한반도/비핵화” 키워드가 급상승 이슈 키워드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 대통령이 최근 5년간 참석한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한-아세안을 신뢰의 동반자, 파트너로 표현하여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한반도 중심 비핵화와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북한 핵문제 관련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함으로써 국민들이 뉴스로부터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담론 구성에 참여했음이 드러났다.

[그림 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정치·안보]



³ 동남아/아세안 관련 조사에서 각 속성 키워드와 동시에 언급하는 상위 200위 내 키워드 리스트에서 중복 제거 후, 발생한 급상승 이슈 키워드를 비교한 내용으로 첨부 [그림 10~17] 참조

[그림 3 아세안 연도별 문서 다양작성자]

| 2012 |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
|------|----|------|---------|------|----|------|-----|--------|------|------|----|-----|---------|------|
| 순위 | 뉴스 | 주요 | 시비 | 시비 | 연재 | 연재 | 연재 | 연재 | 연재 | 연재 | 연재 | | | |
| 1 | 연합 | 뉴스 | 연합뉴스 | 2157 | 1 | 연합 | 뉴스 | 연합뉴스 | 1949 | 1 | 연합 | 뉴스 | 연합뉴스 | 2690 |
| 2 | 뉴스 | 뉴스 | 뉴스 | 1081 | 2 | 뉴스 | 뉴스 | 뉴스 | 1230 | 2 | 뉴스 | 뉴스 | 뉴스 | 1239 |
| 3 | 파이 | 뉴스 | 파이낸셜뉴스 | 732 | 3 | 아시 | 뉴스 | 아시아경제 | 703 | 3 | 뉴스 | 뉴스 | 뉴스1 | 1124 |
| 4 | 이데 | 뉴스 | 머니투데이 | 642 | 4 | 뉴스 | 뉴스 | 뉴스1 | 682 | 4 | 이데 | 뉴스 | 머니투데이 | 738 |
| 5 | 뉴스 | 뉴스 | 뉴스1 | 609 | 5 | 파이 | 뉴스 | 파이낸셜뉴스 | 606 | 5 | 이데 | 뉴스 | 파이낸셜뉴스 | 660 |
| 6 | yt | 뉴스 | yt | 592 | 6 | 이데 | 뉴스 | 머니투데이 | 604 | 6 | 파이 | 뉴스 | 파이낸셜뉴스 | 661 |
| 7 | 한국 | 뉴스 | 한국경제 | 586 | 7 | 이데 | 뉴스 | 이데일리 | 570 | 7 | 이데 | 뉴스 | 이데일리 | 604 |
| 13 | cu |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359 | 14 | ch | 카페 | 네이버 카페 | 393 | 13 | cu |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359 |
| 21 | da |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238 | 15 | bo | SNS | 트위터 | 372 | 21 | da |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 2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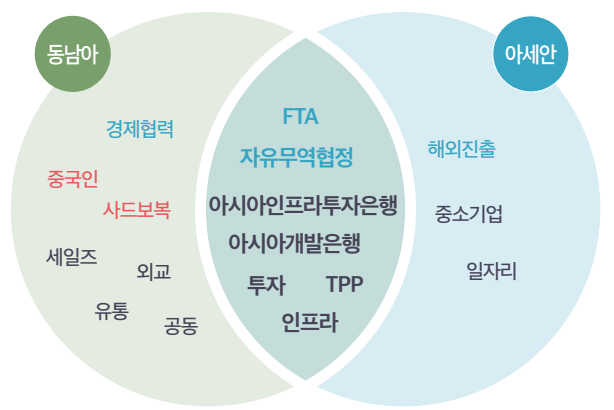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뉴스 한-아세안센터, 중화 아세안 대사 를 앞세워 우회 회피 | 뉴스 한-아세안센터, 중화 아세안 대사 를 앞세워 우회 회피 | 뉴스 인사관 형는 박 대통령 APEC 회담스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정상 도중에서 인사 말을 하고 있다 | 뉴스 중기를 해외진출지원 통합 공교 ...3천600억의 공급 아세안 시장 진출을 기원할 계획... "올해 과학기술인교 확대-창조경 제모델 수출 늘린다" 콘텐츠 합정회사 설립과 아세안 계 3국 진출 추진 등 | 뉴스 한-아시 외교관 북핵문제에 대 한 신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 뉴스 북핵 문제의 한반도 평화 구축, 동 북아 연방 실현 등을 살펴보고, 한 국과 아세안 국가의 공조 방안을... |

*비대응=문서 다양작성자

동남아와 아세안의 정치·안보 급상승 이슈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동남아 관련해서는 정치적 이유로 동남아 진출 한류 스타 활동 제재에 대해 우려하는 자국민의 목소리가 소셜 내 많은 공감을 얻었고, 미얀마의 민주주의적 총선 및 중국 사드 보복 관련 내용도 주요 이슈로 드러났다.

아세안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외교 활동, 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브렉시트가 아세안에 주는 함의, 새롭게 조명 받는 아세안 관련 칼럼들이 뉴스를 통해 상당수 노출되면서 국민들에게 화제 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경제·무역·투자]



경제·무역·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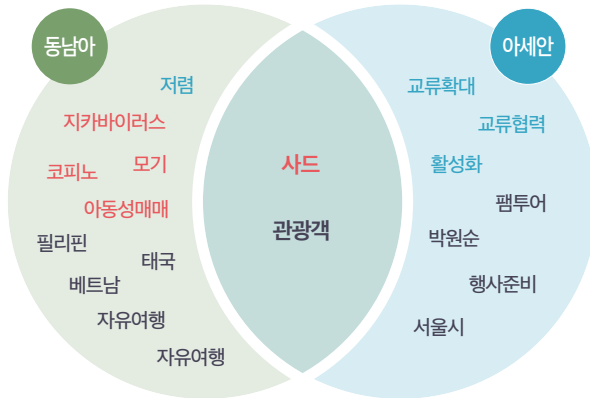
동남아 및 아세안의 경제·무역·투자 관련 급상승 이슈에서는 공통적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인프라” 등의 키워드가 드러났다. 이는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에 대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으로 아세안 국가 내 낙후된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큰 점을 나타낸다.

동남아와 관련해서는 유독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해 한국 내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유통·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얻은 부분에 반해 동남아 관광객이 증가한 점이 화제가 되었다.

아세안과 관련해서는 동남아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던 중국 사드 문제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은 국내 기업이 중국을 대체하여 아세안 시장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아세안 관계 내 중소기업 수출 및 투자 유치 교류 활성화와 해외 취업 일자리 창출 지원 협력 내용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림 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관광·여행]



관광·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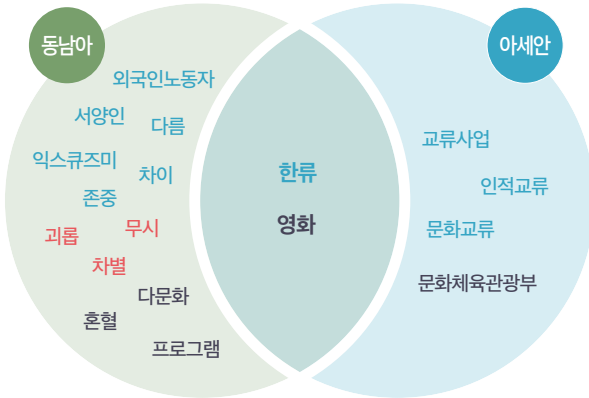
동남아 및 아세안 모두 공통적으로 “사드/관광객” 키워드가 드러났다. 중국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에 편중된 국내 면세 시장과 화장품 업계가 균형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관광객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다.

동남아 관련 해서는 태국/베트남/필리핀 3개 국가명이 5년동안 상위 이슈 키워드로 꾸준히 언급되며 한국인이 선호하는 인기 여행지임이 확인되었다. 태국은 여행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휴양지로서 인기 있었지만 2016년 태국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279명으로 급증하여 부정 이슈 확산이 높았다. 베트남은 다낭, 호치민, 하노이 3대 여행지 언급이 지속되며 맛집과 명소에 대한 긍정 의견이 매우 많았다. 필리핀은 세부, 보라카이 등 여행지 후기에 긍정 의견이 많았지만 필리핀 코피노 친부 대부분이 동남아 여행객 또는 어학 연수생임이 이슈화되며 부정적 의견도 조성되고 있었다.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는 동남아 관련 조사와 다르게 특정 국가명이 이슈 키워드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 대신 “교류확대/교류협력/관광활성화/팜투어/박원순/서울시”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는데, 이는 모두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는 서울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남아를 순방하고 한국 화장품 기업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해 팜투어를 진행하는 등 정부 및 기업이 아세안 국가와의 관광 교류에 주력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안은 실제 관광 지역으로서의 인식보다는 정부 및 기업의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 경제협력체로서의 이미지로 국한된 아세안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SNS채널에 관련 정보를 생성하고 국민들과 소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6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동남아 및 아세안 모두 공통적으로 “한류/영화”에 대한 언급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류 인기로 힘입어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한류 콘텐츠 확산이 가능하며, 한국과 동남아 간의 문화적 교류가 막대한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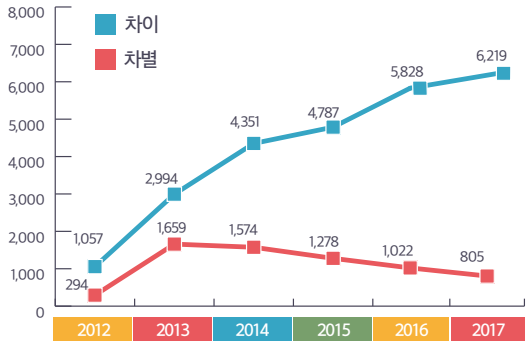
유독 동남아 관련 조사에서만 “인종차별”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 이는 사람들이 서구권 혼혈과 동남아권 혼혈을 분리하며 동남아권 다문화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 결과, 2013~2015년 기준으로 인종 “차별”이 언급되었던 반면, 비교적 최근인 2016~2017년 기준으로는 인종별 “차이”에 대한 언급이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차별/무시/괴롭/비정상회담 TV 프로그램 내 동남아계 비캐스팅” 등 실제 한국인의 동남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선입견과 관련하여 확인

한 부정 감정 키워드들이 발생하였다. 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노동자/존중/이해/다름/차이” 등 한국 내 체류하는 동남아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 사회적 처우, 복지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다인종 시대에 인권 존중, 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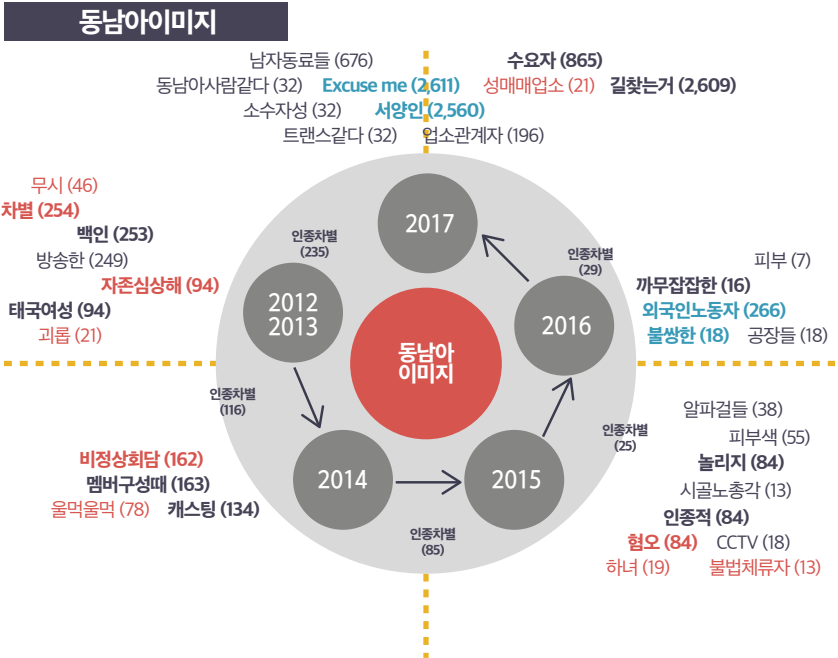
[표 6 “차별”과 “차이” 관련 키워드]

| 차별 관련 키워드 | 차이 관련 키워드 |
|-----------|-----------|
| 차별 | 차이 |
| 인종차별 | 존중 |
| 무시 | 다름 |
| 괴롭 | 이해 |
| 혐오 | 동질 |

[그래프 8 “차별”과 “차이” 키워드 언급량 트렌드]



[그림 7 동남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동남아 이미지]



* 키워드네트워크는 각 속성 키워드의 동시에 언급하는 상위 200위 내 키워드 리스트에서 중복 제거 후, 발생한 급상승 이슈 키워드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삼성전자, CJ 등 정부 부처 및 기업에서 K-Drama, K-Pop, K-Webtoon 문화 시장을 타깃으로 육성 시스템 개발, 콘텐츠 수출 사업에 주력하는 부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남아인의 한국 문화/언어에 대한 수용 태도와 지리적, 사회 문화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한국인과 동남아인의 문화적 정서에 공통점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2.1.3.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감성 표현어: 감정적 인식 조사

[표 7 감성분석 : 정치·안보]

| 동남아 관련 조사 | 공통 | 아세안 관련 조사 |
|--|--|--|
| <p>통일 된다 통일 이룬다 협약 맺다 정책 시작되다 문재인 협력하다 테러 발생하다</p> | <p>사드배치 관련하다 정상회의 참석하다 정상회담 갖다 청와대 설명이다 협약 체결한다 정상 만나다</p> | <p>협정 체결한다 경제 협력하다 영유권 놓다 미사일 대응하다 한반도 위한다 한반도 관련하다 양자회담 갖다 외교부 전하다 외교장관회담 개최되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하다 공동성명 채택하다 아세안정상회의 참석하다 공약 준수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앞두다</p> |

정치·안보

동남아 및 아세안 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표현어는 한국과 동남아국 간 협약·동맹 체결과 중국 사드 문제 및 대북정책 해결 노력 등이었다.

동남아 관련 조사에서는 긍정 언급인 “문재인(대통령) 협력하다”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한국 정상이 국내 경제 및 다문화 사회 발전에 있어 동남아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주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테러 발생하다”와 같은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는 동남아 국가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 사건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극단주의 무장 세력(IS)의 테러 사건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 비상 사태를 우려하는 한국 국민들의 표현이었다.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는 “한반도 위한다”, “한반도 관련하다” 표현어가 상위 랭킹에서 확인되는 바, 아세안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미사일 대응하다”와 같은 부정적 표현어도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북한 핵무기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여 실질적 대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었다.

[표 8 감성분석 : 경제·무역·투자]

| 동남아 관련 조사 | 공통 | 아세안 관련 조사 |
|--|-----------------------------|--|
| 매출 올리다 매출액 향상하다 수요 급격하다 영향력 확대하다 수출하다 수출 체결하다 수출 위한다 자동차 수출하다 서비스 제공하다 서비스 시작하다 시스템 구축하다 | 흑자 기록하다 발전 시키다 진출 위한다 | 수출 증가하다 수입 증가하다 시장 확대하다 FTA 체결하다 FTA 위한다 FTA 타결하다 MOU 체결하다 투자 해야하다 기업 위한다 AIIB 참여하다 경제통합체 탄생하다 |

경제·무역·투자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흑자 기록하다” 표현어가 나타났다. 이는 한-아세안 상호 경제 협력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남아 관련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산업 흑자 창출에 관심이 높았다. “매출액 향상하다”, “영향력 확대하다” 등 한국의 동남아 수출 산업 개척의 직접적인 성과와 경제적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긍정 표현이 확인되었다.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는 한-아세안 경제적 공동체의 활발한 활동 및 지속적인 상생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게 드러났다. “FTA, MOU 체결하다”, “경제통합체 탄생하다” 등 보다 전문적인 경제 협정과 공동체에 대한 언급이 높았다.

[표 9 감성분석 : 관광·여행]

| 동남아 관련 조사 | 공통 | 아세안 관련 조사 |
|---|--------------------------------|---|
| 동남아여행 가고싶다 카지노 따다 동남아여행 하다 동남아여행 가다 여행 가다 여행 다니다 여행 떠나다 투어 하다 기념 촬영하다 택시 타다 보트 타다 성매매 한다 아동포르노 한다 | 여행하다 관광하다 기념 하다 쇼핑 하다 | 관광객 유치하다 관광객 위하다 아세안 여행하려고 하다 가이드북 추천하다 호텔 열리다 기념 사진찍다 휴양 하다 오토바이 타다 |

관광·여행

동남아 및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관광 후기, 개인적 기록이나 추억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동남아 관련 조사에서는 항공과 숙박 예약부터 투숙, 맛집 탐방 등 실제 체험 위주의 의견이 다량 생성되었다.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는 정부 및 기업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과 진행 행사에 대한 의견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아세안 여행하려고 하다”, “가이드북 추천하다” 등의 아세안 여행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표현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세안 키워드에 대한 인지 및 관련 국가들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10 감성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동남아 관련 조사 | 공통 | 아세안 관련 조사 |
|--|-------|--|
| 입맛 맞다 과일 많다 맥주 좋다 망고스틴 먹고싶다 과일 독특하다 과일 맛있다 한국어 가르치다 다문화 없애다 종교 퍼지다 영어하다 공부하다 번역하다 조식 먹다 음식 있다 | 교육 받다 | 한류 이끈다 한류 대표되다 아세안영화제 이벤트하다 학교 설립하다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동남아 및 아세안 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상호 사회적, 문화적, 언어적 교육의 증진 필요성에 대한 표현이 드러났다. 한국은 영어권 동남아 국가에서의 비교적 저렴한 어학 연수 및 유학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동남아 국가와 문화에도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현지 취업을 원하는 한국인들은 각 국가별 전통 언어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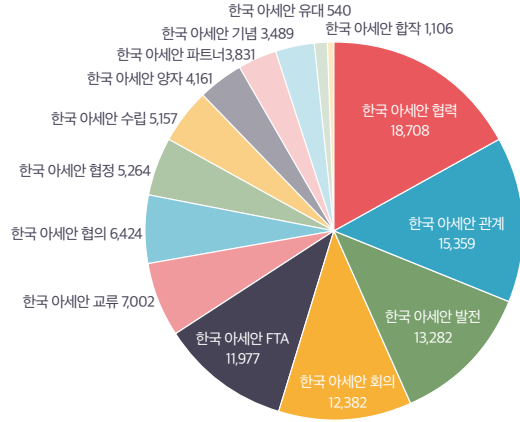
동남아 관련 조사에서는 “과일 독특하다”, “과일 맛있다”, “한국어 가르치다” 등의 표현어가 나왔다. 이는 동남아 특산 열대 과일 관련 긍정적인 반응과 동남아 한류 팬 및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부 자국민들의 표현으로 발생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 다문화를 포용 또는 배척하는 등 동남아인들을 보는 자국민들의 입장이 구분됨을 확인하였고, 동남아 국가 중 극단적인 종교 색채가 강한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보였다.

아세안 관련 조사에서는 “한류 이끈다”, “아세안영화제 이벤트하다”, “학교 설립하다” 등의 표현어가 상위 순위로 확인되었다. K-Brand, K-Beauty 사업 확대가 아세안 한류 열풍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는 내용과 2014년 아세안영화제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호응이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유명 연예인의 동남아 한류 팬들의 모금으로 아프리카에 학교가 설립된 사례가 이슈화되었다. 이로써 한국과 아세안은 이미 한류, 영화, 식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가 활발함을 확인하였고, 사회·문화적 관계가 밀접히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2. 한-아세안 관계 인식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문서의 비율은 ‘한국 아세안 협력’ 관련이 17%로 가장 많았고, ‘한국 아세안 관계’가 14%, ‘한국 아세안 발전’이 12%, ‘한국 아세안 회의’, ‘한국 아세안 FTA’는 11%로 동일했다.

[그래프 9 한-아세안 관계 관련 키워드 언급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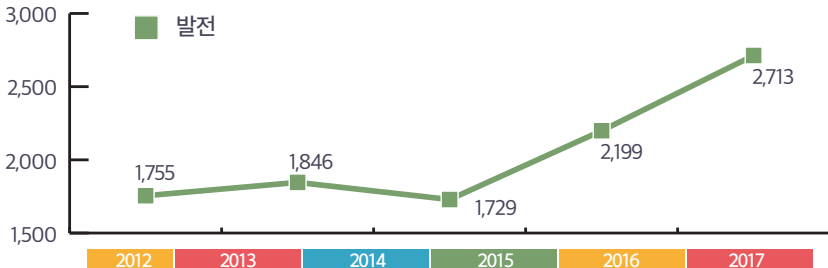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의 현재 관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는 “발전”, “자유무역협정”, “분야”, “관계”, “양국” 이었다. 이는 다자간 또는 양국간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국내 수출 증가, 경제 발전 등 상당 부분 한-아세안 상호 호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문서들의 상위 연관 키워드는 대부분 긍정적 키워드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은 기존 교역 확대 중심의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적 협력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 균형을 모색하는 최적의/번영의 파트너, 동반자임이 지속 강조되고 있었다. 물질적 교류뿐 아니라 진정한 소통으로 미래지향적 상생 관계를 구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세안 양자’ 문서에서 드러난 “북핵문제”의 경우, 부정적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정부가 아세안+3(한, 중, 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에 주력하여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아세안과 함께 협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프 10 “발전” 키워드 언급량 트렌드]



[표 11 “한-아세안 관계” 문서 관련 연관 키워드]

| 문서 구분 | 상위 키워드 | 빈도 | 문서 구분 | 상위 키워드 | 빈도 | 문서 구분 | 상위 키워드 | 빈도 |
|---------------------|--------------|-------|----------------------|------------|-------|-------------------------|-------------|--------|
| ① 협력 18,708 건 | 강화 | 7,208 | ② 관계 15,359 건 | 발전 | 3,754 | ③ 발전 13,282 건 | 노력 | 2,271 |
| | 분야 | 6,748 | | 양국 | 3,230 | | 분야 | 1,799 |
| | 발전 | 5,939 | | 대통령 | 2,969 | | 관계 | 1,778 |
| | 관계 | 5,301 | | 협력 | 2,936 | | 다양한 | 1,732 |
| | 논의 | 5,257 | | 박근혜 | 2,866 | | 기대 | 1,686 |
| ④ 회의 12,328 건 | 참석 | 3,888 | ⑤ FTA 11,977 건 | 자유무역 협정 | 9,402 | ⑥ 교류 7,002건 | 발전 | 370 |
| | 논의 | 3,784 | | 협상 | 4,149 | | 상호 | 355 |
| | 방안 | 2,747 | | 체결 | 3,622 | | ASEAN | 336 |
| | 강조 | 2,586 | | 발효 | 3,251 | | 양국간 | 328 |
| | 회원국 | 2,399 | | 타결 | 3,211 | | 초청 | 310 |
| ⑦ 협의 6,424건 | 방안 | 666 | ⑧ 협정 5,264건 | 협상 | 263 | ⑨ 수립 5,157건 | 대화관계 | 595 |
| | 계기 | 631 | | 발효 | 205 | | 25주년 | 583 |
| | 한반도 | 604 | | 자유무역 협정 | 202 | | 기념 | 357 |
| | 의견 | 581 | | 수입 | 193 | | 동반자 | 285 |
| | 외교부 | 531 | | 관세 | 193 | | 2009년 | 236 |
| ⑩ 양자 4,161건 | 다자 | 291 | ⑪ 파트 너 3,831건 | 최적 | 82 | ⑫ 기념 3,489건 | 주최 | 158 |
| | 북핵문제 | 240 | | 견인차 | 78 | | 25주년 | 146 |
| | 의견 | 223 | | 적극 | 73 | | 처음 | 115 |
| | 동아시아 정상회의 | 204 | | 내실 | 67 | | 공연 | 110 |
| | 협약 | 201 | | 약속 | 64 | | 아세안10 개국 | 101 |
| ⑬ 합작 1,106건 | 단독 | 23 | ⑭ 유대 540건 | 사이 | 32 | 전체 TOP5 관련 키워드 | 발전 | 13,817 |
| | 요르단 | 21 | | 자본 | 30 | | 자유무역 협정 | 9,604 |
| | 50억 | 21 | | 진실한 | 30 | | 분야 | 8,547 |
| | 신설공사 | 20 | | 물질적인 | 30 | | 관계 | 7,079 |
| | 다사 | 20 | | 미래지향 적인 | | | 양국 | 6,460 |

더불어 한국과 아세안 관계 인식의 추이 변화를 확인해 보고자 최근 5년간 연도별 최상위 10개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전체 연도 기준 최상위 긍정 키워드였던 ‘발전’의 경우, 해마다 언급되며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 되었다.

첫 번째, 한국과 아세안은 각 제반 분야에서 상생 발전 구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동 번영의 파트너,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역내 평화의 견인차,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융성의 동반자로서 동반 성장 가능성과 관계 발전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한국과 아세안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경제 교역 및 문화 교류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양자 또는 다자간 주요 정상들간 신뢰와 유대 강화를 통해 한층 더 긴밀한 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 최근 들어 한국 정상 및 주요 정부 인사들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끊임 없는 외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주변 4개국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중요한 번영의 파트너인 아세안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평가들을 볼 수 있었다.

[표 12 “한-아세안 관계” 문서 키워드 랭킹 : 연도별]

| 2012,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 자유무역 협정 | 1,978 | 자유무역 협정 | 2,618 | 논의 | 2,020 | 발전 | 2,199 | 발전 | 2,713 |
| 발전 | 1,755 | 발전 | 1,846 | 자유무역 협정 | 2,198 | 기대 | 989 | 자유무역 협정 | 1,449 |
| 관계 | 1,201 | 동반자 | 1,518 | 발전 | 1,729 | 확대 | 977 | 협력 | 1,409 |
| 확대 | 1,146 | 전략적 | 1,430 | 추진 | 1,483 | 추진 | 918 | 추진 | 1,023 |
| 추진 | 1,061 | 체결 | 1,257 | 분야 | 1,242 | 자유무역 협정 | 907 | 외교 | 984 |
| 협상 | 960 | 기대 | 1,120 | 참여 | 1,030 | 양국 | 821 | 구축 | 904 |
| 논의 | 580 | 경제 | 1,046 | 협상 | 967 | 협력 | 756 | 희망 | 315 |
| 기대 | 497 | 25주년 | 675 | 성장 | 440 | 가능성 | 704 | 중요한 | 289 |
| 다양한 | 497 | 대화 관계 | 558 | 다양한 | 404 | 다양한 | 349 | 적극적 | 210 |
| 의견 | 258 | 중요한 | 374 | 유리 | 104 | 합의 | 164 | 지속적 | 135 |

최근 5년간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긍정 키워드인 “발전” 이외에 발생한 다른 긍정 키워드들의 발현 내용들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2013년에는 “확대/기대” 등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기업간 기술 및 정보 교류 활성화에 대한 확대 방침, 한-아세안 FTA 관련 기대 효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2014년에는 “동반자/전략적/중요한”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언급되며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 표명과 함께 한-중 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긴밀한 관계가 한-아세안 관계라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2015년에는 “성장/유리” 키워드가 돋보였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 간 상품, 서비스, 자본, 인력의 이동 장벽 최소화에 따라 경제 성장 가속화가 가능하다는 점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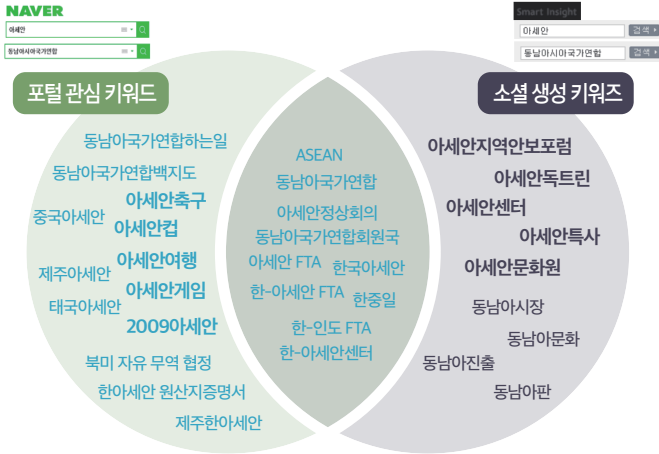
2016년 들어서는 “기대/협력/가능성” 등 한층 더 가까워진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문화 교류적 측면에서 부산 아세안 문화원 건립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다. 또한, 국내 외국인 거주 비율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남아인들과의 경제 및 문화 협력이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의료 서비스가 접목된다면 중국, 아세안 등 거대 한 고령화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다수 언급되었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는 “협력/구축/희망/중요한/적극적/지속적” 등의 키워드 언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제약업체의 의약품 분야 협력 사업 강화, 중소·중견 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을 위한 주요국과 정부간 파트너십 구축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세안은 한국에게 경제 발전 노하우 공유를 희망하고, 한국은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인 상생 관계를 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의 관심도와 실제 생성된 문서 내에서의 인식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 키워드와 검색창에서 아세안 검색 후 확인되는 연관 검색어들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세안 연관 검색어의 경우 아세안 여행, 게임, 스포츠, 행사 등 엔터테인먼트형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분석 결과 도출된 키워드 그룹의 경우 전문가 사용형/미디어 배포형 키워드의 성격이 나타났다. 연관 검색어 그룹과 분석 결과 키워드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키워드들은 정보, 지식 추구형으로 아세안, 한-아세안 관련 정이나 회원국, 의미를 확인하는 키워드 군이었다.

[그림 8 아세안 연관 검색어 및 분석 결과 키워드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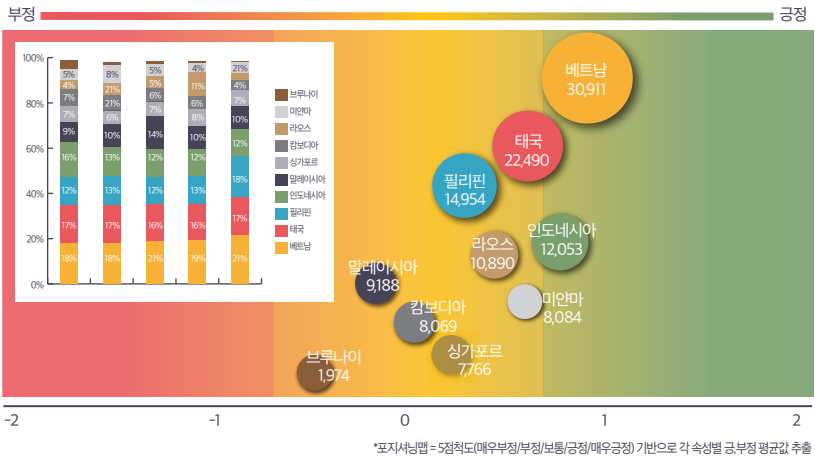
* 네이버 연관검색어 : 사용자들이 많이 찾은 검색어로 백과사전(지식IN)블로그(커뮤니티) 등 콘텐츠의 다양한 검색어를 분석하여 추출한 결과

2.3. 아세안 국가별 인식

아세안 시장은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우며 전 세계적으로 아세안 시장의 잠재력이 주목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그 동안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었던 교역 노선을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강화하여 아세안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러한 국제 정세 흐름에 발맞춰 본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아세안 국가별 인식 조사를 위해 한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국가별 감성 표현어를 살펴 보았다.

[그래프 11 아세안 10개국 국가별 포지셔닝맵]



공통적으로 경제·무역·투자 관련 감성 표현이 가장 많았다. 한국 제조 산업 중 화장품, 자동차 수출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였다. 화장품의 경우, 아세안 국가에서 K-Beauty 붐이 일어나면서 아시아 뷰티 강국으로 불리는 태국을 중심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국가별 국민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자동차 산업 역시 점차 아세안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중이다. 아세안 국가들의 자동차 시장 규모는 아직 작은 편에 속하지만,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 철폐가 가져오는 자동차 가격 인하가 수요를 더욱 증진시켜 아세안 국가 대상, 특히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의 한국 자동차 산업 성장세가 지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IS테러로 인해 아세안 국가 국민의 공포감이 조성되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점과 대북 정책과 사드배치 등의 이슈가 아세안 국가의 경제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아세안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는

며, 이를 통해 국가별 경제 협력과 국가 안보를 위한 대응 방안 모색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안 국가의 감성 표현어 중 관광 관련 표현어도 다수 언급되었다. 아세안 국가의 저렴한 물가, 자연 친화적인 환경, 동남아 열대 과일 등 식품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순수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관광객을 환영 해주는 동남아인들의 성품 역시 국내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1년 내내 무더운 날씨라는 아세안 국가의 특성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관광객과 한국의 매서운 동절기 날씨에 지쳐 따뜻한 동남아 날씨를 때문에 여행을 원하는 관광객이 공존하고 있었다.

아세안 10개국 대상 각 개별 국가들의 긍·부정 경향성 및 여론 특징은 아래와 같다.

[표 13 아세안 10개국 전체 감성 긍·부정 주요 여론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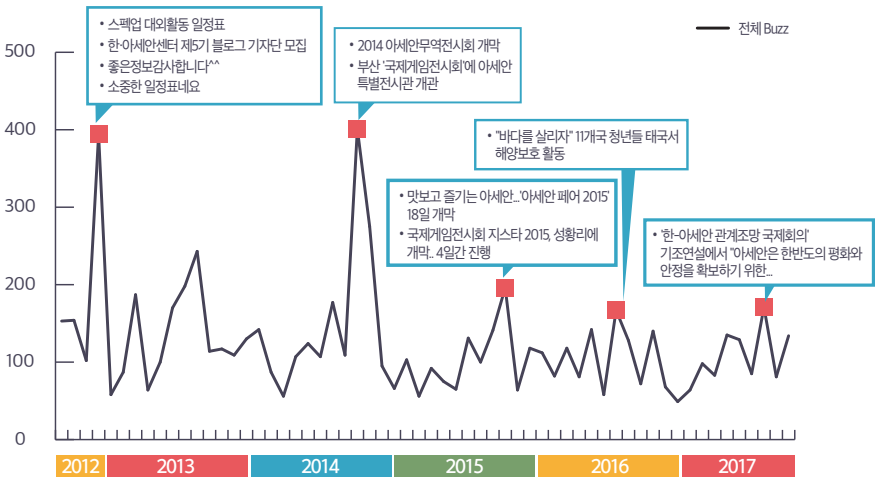
| 국가(빈도순) | 긍정 | 부정 |
|---------|---|---|
| 베트남 |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내수시장이 커지는 베트남에 대한 관심 증가 K-Beauty, 자동차 등 국내 기업이 베트남으로의 시장 진출 모색 음식, 명소의 아름다움에 대해 만족 | 인신매매의 위험 및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반 인신매매 협약 체결 및 계속되는 실업난으로 해외 인력 송출 방안 모색 베트남 여행 중, 덩기열 감염과 더운 날씨로 인한 불안 |
| 태국 | 아세안 시장 안착을 위해 아세안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태국을 1순위로 보고 있으며, K-Beauty 확산으로 국내 화장품 업계가 태국 시장으로의 진출 모색 저렴한 물가와 음식에 큰 매력을 느껴 한국 내 일본 문화와 여행을 매우 좋아하는 일명 오타쿠와 같은 태국 매니아층이 존재 '태국 한달 살기' 계획을 가진 여행객 증가 | 북핵, 미사일 관련 대북 제재 수위를 올리기 위해 미국은 태국에서의 북한 경제활동 압박 저렴한 줄 알았던 태국이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있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비싸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발견 |
| 필리핀 |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떠오르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K-Beauty, 핀테크 등 필리핀과의 교류 협력 강화 중 현대 시대와 맞지 않게 오염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저렴한 물가에 대한 만족 | 필리핀 내 마약 이슈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 고도화 한국 유학생, 어학연수생의 일명 필리핀 성매매 관광으로 인해 코피노 증가 관련 부정 이슈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대형 바퀴벌레 등 벌레에 대한 무서움을 느낌 |
| 인도네시아 | 경제 협력, 일자리 창출 관련 밀접성 및 한류의 큰 인기와 더불어 화장품,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요 증가 특유의 정글과 비슷한 우거진 숲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대한 만족 | IS 폭탄 테러로 인한 피해 볼거리가 많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무더운 날씨와 비행 거리 등 여행지로서의 비중은 낮은 편 |

| | | |
|---------------------|--|--|
| <p>라오스</p> | <p>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중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p> <p>'꽃보다 청춘' TV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관광 수요가 급증 하였으며, 라오스인의 친절함과 저렴한 물가가 라오스 여행의 큰 만족 요소로 작용</p> | <p>아직까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존재감이 낮아 정보가 부족한 라오스로의 해외 진출은 어렵다는 의견</p> <p>한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상업화된 라오스에 대한 비판 존재</p> <p>사회주의 국가인 점과 동남아 치고는 다소 이동시간이 길어 여행지로서는 부적격하다는 의견</p> |
| <p>말레이시아</p> | <p>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의 K-Beauty, 자동차 산업 시장을 확대하며 그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p> <p>저렴한 물가와 식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한국인이 많지 않고 다양한 인종(중국계, 인도계, 말레이계) 계층이 섞여 있는 부분에 대한 호감도 존재</p> | <p>동남아 IS 테러에 대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대책 방안 모색 필요</p> <p>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타 아세안 국과는 달리, 관광으로써 조금 무료하다는 의견</p> |
| <p>미얀마</p> | <p>높은 인구수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미얀마 진출을 시작으로 아세안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p> <p>친절하고 밝은 미소를 가지고 있는 미얀마인에 대한 감동과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여행 후기</p> | <p>미얀마의 더딘 경제 개발 속도 및 강대국들과의 치열한 경쟁과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미얀마 시장 진출에 대한 어려움도 존재</p> <p>현대 시대에 맞지 않는 낙후된 시설, 해마다 인상되는 미얀마 비자 신청 발급 수수료 및 물가에 대한 불만</p> |
| <p>캄보디아</p> | <p>아세안 국가 중 가장 낮은 GDP를 나타내는데 반해, 캄보디아인들의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남</p> <p>교통 인프라 구축 등 경제적으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추세</p> <p>저렴한 물가와 쏜살갑 호수 등 관광 명소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캄보디아인의 순수한 모습에 감동</p> | <p>아직까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국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캄보디아에서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은 어렵다는 의견</p> <p>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캄보디아 식품에 대한 실망감이 많은 편</p> |
| <p>싱가포르</p> | <p>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로 분류되며, 자동차 시장 규모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짐</p> <p>화려한 야경과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라는 유니크한 매력으로 싱가포르 여행에 대한 만족도 높은 편</p> | <p>할랄 인증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는 한국 이슬람교중앙회(KMF)를 인정하지 않아 인증에 있어 번거로움</p> <p>너무 강한 햇볕으로 인해 밝은 낮에 관광하기 어려움</p> |
| <p>브루나이</p> | <p>정치 및 경제적으로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어 경제 성장 기대와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공존</p> <p>전 세계적으로 딱 2개뿐인 7성급 '엠펙이어 호텔' 추천과 브루나이 공연에 대한 만족</p> | <p>전반적으로 시장이 협소하며 행정 불투명과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으로 브루나이 국가로의 시장 진출 반대</p> <p>브루나이 국가 규모 및 인구가 매우 적어 다소 무료함을 느낄 수 있음</p> <p>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적용에 대한 불만과, 대중교통 미비로 이동수단에 대한 불편함 호소</p> |

2.4. 한-아세안센터 활동 관련 담론의 특징

한-아세안센터의 미래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소셜 내에서 생성되는 “한-아세안센터” 키워드가 포함된 문서를 살펴 보았다. 한-아세안센터와 관련하여 총 7,464건, 연평균 약 1,200건의 문서가 발생하였다. 문서의 절반 이상은 센터에서 배포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뉴스에서 35%, 블로그에서 20%의 문서가 생성되었다. 주로 배포한 내용은 센터가 주관하는 축제, 포럼 등의 행사에 대한 홍보와 성과 내용이였다. 언론사 중 연합뉴스에서 가장 많은 문서가 발생했으며 파급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12 한-아세안센터 연도별 소셜 트렌드]



*2017년 1월경의 문서 파세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름으로 기 분석에서 삭제 후 분석함 / 전체 수집/분석 기간: 2012.11~2017.10 (총5년)

[그림 9 한-아세안센터 연도별 문서 다량작성자]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순위 유형 채널 사이트 전체 글수 | 순위 유형 채널 사이트 전체 글수 | 순위 유형 채널 사이트 전체 글수 | 순위 유형 채널 사이트 전체 글수 | 순위 유형 채널 사이트 전체 글수 | 순위 유형 채널 사이트 전체 글수 |
| 1 ok...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164 | 1 연합뉴스 뉴스 연합뉴스, 144 | 1 연합뉴스 뉴스 연합뉴스, 170 | 1 연합뉴스 뉴스 연합뉴스, 103 | 1 연합뉴스 뉴스 연합뉴스, 219 | 1 연합뉴스 뉴스 연합뉴스, 203 |
| 2 연합뉴스 뉴스 연합뉴스, 144 | 2 ok...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158 | 2 ok...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158 | 2 뉴스... 뉴스 뉴스, 90 | 2 ok...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123 | 2 ok...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59 |
| 3 뉴스... 뉴스 뉴스, 139 | 3 뉴스... 뉴스 뉴스, 124 | 3 뉴스... 뉴스 뉴스, 124 | 3 ok...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56 | 3 뉴스... 뉴스 뉴스, 68 | 3 코리... 뉴스 코리아헤럴드, 34 |
| 4 코리... 뉴스 코리아헤럴드, 43 | 4 한국... 뉴스 한국경제, 57 | 4 한국... 뉴스 한국경제, 57 | 4 뉴스... 뉴스 뉴스1, 45 | 4 뉴스... 뉴스 뉴스1, 43 | 4 뉴스... 뉴스 뉴스, 28 |
| 5 서울... 뉴스 서울신문, 36 | 5 코리... 뉴스 코리아헤럴드, 30 | 5 코리... 뉴스 코리아헤럴드, 30 | 5 한국... 뉴스 한국경제, 29 | 5 연합뉴스 뉴스 한국경제, 32 | 5 pa... 카페 네이버 카페, 27 |
| 6 cu...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33 | 6 cu...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30 | 6 cu...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30 | 6 코리... 뉴스 코리아헤럴드, 25 | 6 서울... 뉴스 코리아헤럴드, 26 | 6 서울... 뉴스 서울신문, 25 |
| 7 ep... 뉴스 epa연합, 24 | 7 어시... 뉴스 아시아경제, 26 | 7 어시... 뉴스 아시아경제, 26 | 7 ep... 뉴스 epa연합, 25 | 7 서울... 뉴스 서울신문, 24 | 7 ok... SNS 트위터, 21 |
| 8 da...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24 | 8 어우... 뉴스 어우경제, 25 | 8 어우... 뉴스 어우경제, 25 | 8 어시... 뉴스 아시아경제, 24 | 8 mh...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23 | 8 어시... 뉴스 아시아경제, 19 |
| 9 so...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21 | 9 매일... 뉴스 매일경제, 24 | 9 매일... 뉴스 매일경제, 24 | 9 서울... 뉴스 서울신문, 23 | 9 매일... 뉴스 매일경제, 22 | 9 한국... 뉴스 한국경제, 17 |
| 10 ch... 카페 네이버 카페, 18 | 10 서울... 뉴스 서울신문, 23 | 10 서울... 뉴스 서울신문, 23 | 10 매일... 뉴스 매일경제, 20 | 10 서울... 뉴스 서울경제, 18 | 10 피어... 뉴스 피어낸블로그, 16 |
| 블로그 ASEAN 연면적증 - 2013 결산 및 2014년 전망 블로그 기자 감언걸입니다 | 뉴스 "아세안을 통한...한국을 배우자" 최년호걸 개최 | 블로그 말레이시아 아جت 한국에 들어오 맛기 블로그 기자단 이경화 임니 다! | 뉴스 찾아가는 아세안 문화·관광 체험 관 '아세안 로드쇼' | 뉴스 한-아세안센터,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뉴스 "한-아세안 기업시장 진출하려면" 내달 서울서 워크숍 |
| 뉴스 한-아세안센터, '2013 아세안축제' '개최' | 블로그 말레이시아 아جت 한국에 들어오 맛기 블로그 기자단 이경화 임니 다! | 블로그 말레이시아 아جت 한국에 들어오 맛기 블로그 기자단 이경화 임니 다! | 블로그 김명선 신인 사무총장 취임사 | 뉴스 아세안10개국의 문화와 음식을 너 무니 사랑하는 한-아세안센터 11 기 기자단 정민호입니다. | SNS #프린비 #바다가 그리워지는 #금 요일 #태국 #한-아세안센터 #아세 안 #동남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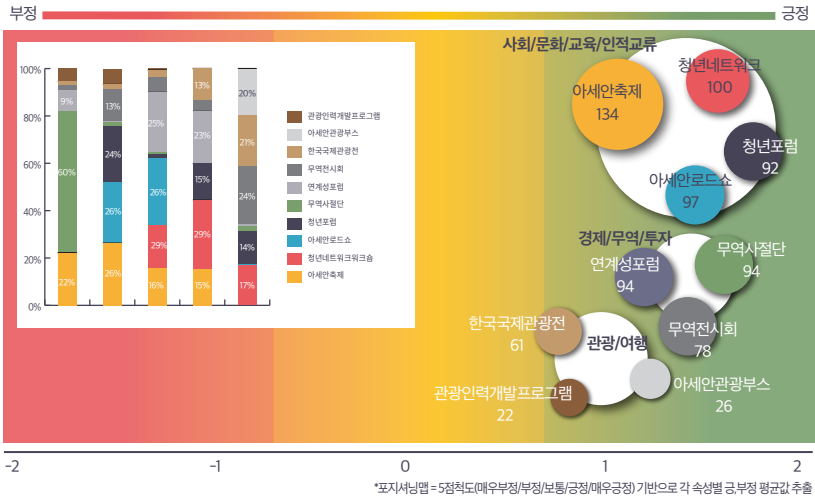
또한, 일부 개인 블로그와 카페 채널에서 한-아세안센터가 진행하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URL을 공유하며 행사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이벤트 진행을 통해 한국 대중의 관심을 유도한다면 사람들이 한-아세안센터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표 14 한-아세안센터 페이스북 확산 문서 : 연도별]

| 연도 | 순서 | 문서 제목 및 내용 | 확산 채널 |
|--------------|----|---|-------|
| 2017 | 1 | 한-아세안영화제에서 단편영화_박상균 감독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akcsns/app/303561899745219/ | 블로그 |
| | 2 | 한-아세안센터 '아세안의 달' 슬로건 투표 이벤트 (~2/20, 2/21발표) ...이벤트를 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akcsns/posts/1445208168845458 | 카페 |
| | 3 | 한-아세안센터 https://www.facebook.com/akcsns/posts/1565210743511866 | 블로그 |
| 2016 | 1 | 한-아세안센터 페이스북, 브루나이 지역기반관광 프로그램 영상 투표 이벤트 (~9/11, 9/13발표... https://www.facebook.com/akcsns/posts/1254690347897242 | 카페 |
| | 2 | 한-아세안센터 페이스북, 아세안홀스테이 영상 투표 이벤트(~1/15, 1/22발표) ...이벤트를 바로가기 : https://www.facebook.com/akcsns/posts/1092434404122838 | 블로그 |
| | 3 | 한-아세안센터 페이스북, MBC 특집 다큐멘터리 '어메이징 아세안' 기대형 이벤트(~4/4, 4/7발표)... 페이스북 메인 : https://www.facebook.com/akcsns | 카페 |
| 2015 | 1 | [국제기구 한-아세안센터] 제9기 대학(원)생 블로그 기자단 모집 공고 ...○ Blog: http://blog.naver.com/akcsns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akcsns ○ Twitter: https://twitter.com/akcsns | 블로그 |
| | 2 | [한-아세안센터]한-아세안센터 제10기 블로그 기자단 합격! ...제 블로그에도 함께... https://www.aseankorea.org/index.asp https://www.facebook.com/akcsns | 블로그 |
| 2014 | 1 | 한-아세안 청년포럼 참가자 선착순 200명 □모집! 한-아세안센터 블로그 기자단 순취주입니다...이 외에도 다양한 알찬 소식들이 한-아세안센터 페이스북으로 ... | 블로그 |
| | 2 | 아세안의 보석 전시는 이번주 일요일까지...페이스북을 통해 이벤트 및 전시정보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https://www.facebook.com/akcsns | 블로그 |
| | 3 | 홈페이지 : www.aseankorea.org 페이스북 : www.facebook.com/akcsns 블로그 : blog.naver.com/akcsns 위의 사이트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
| 2013 2012 | 1 | 아세안화합하마당 2013 포스터 다운 & 후기 이벤트 ... https://www.facebook.com/akcsns 응모방법 및 경품 캡처화면 : ----- | 블로그 |
| | 2 | 한-아세안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아세안화합하마당 2013' 게시물을 공유한 후 좋아요(like) 수를 가장 많이 올린 참가자 30명을 선정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 | 뉴스 |

한-아세안센터 주관 사업들을 3대 속성으로 분류한 결과, 문화 60%, 경제 32%, 관광 8%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 보도를 통해 주관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배포되며 3대 속성 모두 긍정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래프 13 한-아세안센터 사업별 포지셔닝맵]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속성의 사업이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아세안축제”, “아세안로드쇼”, “아세안영화제”, “아세안음식축제”, “청년네트워크”, “청년포럼” 등 사람들의 흥미 요소를 내포하고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 체험 중심의 행사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별 전통 민속 공연이 펼쳐지는 “아세안축제”에 대한 관심이 꾸준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된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경제·무역·투자’ 속성 중 “연계성포럼”, “투자설명회”, “시장조사단” 등 아세안 시장과 투자에 관련된 사업의 수가 많았으나, 그보다는 “무역사절단”, “무역전시회” 등 식품과 관련된 무역 사업의 언급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광·여행’ 속성의 사업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 경제 속성의 언급량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언급량이었다. 이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체험형 사업의 추진과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태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광 인력 역량 개발 프로그램’은 꾸준히 언급되는 사업이므로 해당 사업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

3대 속성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인적, 문화적 교류로 한-아세안센터의 비전인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적이고 진정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채널 역할과 일치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아세안 관련 지속적인 지원과 외교 활동에 힘입어 정부 부처와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 발전뿐만 아니라 한-아세안센터 기관의 보다 높은 인식 제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분석 의의 및 제언



3. 결론 : 분석 의의 및 제언

한국인이 아세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웹과 SNS상의 관련 문서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아세안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경제 협력 면에서는 상호 발전적 관계로, 사회·문화 협력 면에서는 한류 열풍이 한국과 아세안의 연결고리가 되어 지속적인 문화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 안보 면에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 한-아세안 공조가 지속 가능한 최적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아세안 지역 국민들(동남아인)에 대한 조사에서 ‘차별’ 관련 키워드가 ‘차이’ 관련 키워드로 대체되고 있었다. 이는 국가 및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 해지면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양 지역 간의 상생 관계가 생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한국인들에게는 관광 산업 교류 면에서 동남아, 동남아시아가 보다 친숙하며, 아직 아세안을 여행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공동체, 경제 협력체로서의 이미지로 국한되어 있는 아세안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 여가 산업과 연결하여 아세안 여행, 아세안 트립, 엔터테인먼트 관련 이벤트를 기획한다면 국민의 관심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최근 트렌디한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아세안 회원국가별 상세 여행 정보를 공유하고, 성별/연령별/특정 매니아층을 겨냥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하여 국민들과 소통한다면 ‘아세안’ 브랜드 가치 및 대중 인식 제고(포지셔닝)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웹과 소셜 공간에서 아세안 관련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담론에 참여하는 참여자 기반의 활동이 필요하다. 소셜 공간의 주요 참여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세안을 키워드로 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활성화와 적절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대중의 ‘대아세안’ 인식 제고와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와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한-아세안센터의 역할이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아세안 공동체의 가치를 사회의 토대로 세우려는 각계의 노력이 집중되어 공동체 담론과 실천으로 이어지는 활동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수행된 빅데이터 분석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분석 대상 데이터가 국내에서만 생성된 한글 텍스트 기반의 문서로 제한된 점,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 수집의 제약으로 SNS 채널을 트위터로 국한한 부분이 그것이다. 이후 분석 대상 채널의 확대와 실제 아세안 인들이 작성한 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면 보다 정확한 아세안 관련 인식도

및 비교문화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은 기존 교역 확대 중심의 교류를 넘어 경제·사회·문화 등 다차원적인 협력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익과 균형을 모색하는 번영의 파트너이다. 한국의 아세안 인식 관련 조사를 빅데이터를 통해 정기적으로 연구한다면, 한-아세안 상호 인식 및 인지도 파악이 가능하며 이는 한-아세안 간 지속가능하고 진정한 관계를 다져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부

동남아와 아세안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첨부. 동남아와 아세안에 대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

1. 동남아 vs 아세안 키워드 랭킹 분석

1.1. 정치적 측면(정치·안보)

[표 15 동남아 키워드 랭킹 분석 : 정치·안보]

| 2012,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 정부 | 19,830 | 정부 | 10,861 | 정부 | 11,962 | 정부 | 14,161 | 정부 | 13,090 |
| 대통령 | 9,550 | 정책 | 4,691 | 전쟁 | 5,084 | 대통령 | 6,257 | 대통령 | 7,437 |
| 정책 | 7,084 | 대통령 | 4,242 | 정책 | 4,736 | 정책 | 5,356 | 한반도 | 5,501 |
| 전쟁 | 6,466 | 정치 | 2,810 | 대통령 | 4,572 | 전쟁 | 4,884 | 정책 | 4,572 |
| 정치 | 4,226 | 한반도 | 1,989 | 정치 | 3,389 | 정치 | 2,901 | 전쟁 | 3,576 |
| 정상 | 3,451 | 정권 | 1,617 | 한반도 | 2,251 | 한반도 | 2,029 | 국무부 | 3,234 |
| 한반도 | 3,213 | 정상 | 1,549 | 정상 | 1,841 | 박근혜 | 1,891 | 사드 | 3,164 |
| 박근혜 | 2,815 | 장관 | 1,429 | 동아시아 | 1,754 | 정상 | 1,450 | 트럼프 | 2,672 |
| 장관 | 2,553 | 정치적 | 1,335 | 통일 | 1,613 | 장관 | 1,331 | 정치 | 2,314 |
| 정권 | 1,946 | 통일 | 986 | 정치적 | 1,561 | 정권 | 1,248 | 문재인 | 1,798 |
| 외교 | 1,684 | 네트워크 | 808 | 정권 | 1,370 | 정치적 | 1,163 | 정치적 | 1,763 |
| 정상회의 | 1,601 | 박근혜 | 806 | 장관 | 1,369 | 동아시아 | 1,094 | 장관 | 1,554 |
| 정치적 | 1,594 | 동아시아 | 663 | 최루탄 | 1,103 | 정상회의 | 1,066 | 미사일 | 1,501 |
| 동아시아 | 1,592 | 국회 | 571 | 살상용 | 1,091 | 트럼프 | 1,006 | 정권 | 1,497 |
| 식민지 | 1,559 | 선거 | 518 | 박근혜 | 1,084 | 통일 | 979 | 유엔 | 1,428 |
| 통일 | 1,260 | 박근혜정부 | 435 | 식민지 | 1,012 | 테러 | 964 | 외교 | 1,107 |
| 정상회담 | 1,154 | 의회 | 422 | 목숨 | 909 | 분쟁 | 935 | 시진핑 | 1,084 |
| 군대 | 1,091 | EU | 405 | 테러 | 833 | 네트워크 | 875 | 중국정부 | 1,074 |
| 목숨 | 991 | 민주주의 | 401 | 군대 | 706 | 군대 | 806 | 보복 | 1,073 |
| 중국정부 | 272 | 유엔 | 399 | 무기 | 700 | 국무부 | 795 | 동아시아 | 1,049 |

[표 16 아세안 키워드 랭킹 분석 : 정치·안보]

| 2012,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 정부 | 11,607 | 특별정상회의 | 20,162 | 정부 | 9,468 | 대통령 | 10,796 | 대통령 | 14,665 |
| 대통령 | 11,096 | 정부 | 8,898 | 대통령 | 7,067 | 정부 | 10,675 | 정부 | 13,186 |
| 한반도 | 6,860 | 대통령 | 8,398 | 박근혜 | 4,386 | 한반도 | 8,044 | 한반도 | 11,796 |
| 박근혜 | 5,825 | 박근혜 | 5,632 | 정상회의 | 4,164 | 정상회의 | 5,954 | 장관 | 6,825 |
| 정상회의 | 5,443 | 한반도 | 5,182 | 정책 | 4,102 | 박근혜 | 5,308 | 문재인 | 6,455 |
| 정책 | 4,946 | 정상회의 | 4,482 | 장관 | 3,968 | 안보 | 4,826 | 대북 | 5,884 |
| 정상회담 | 4,538 | 정상회담 | 3,748 | 한반도 | 3,804 | 정책 | 4,674 | 정책 | 5,599 |
| EU | 4,235 | 안보 | 3,570 | 안보 | 3,292 | 사드 | 4,269 | 안보 | 5,550 |
| 안보 | 4,130 | 정상 | 3,508 | 정상회담 | 2,809 | 장관 | 4,004 | 미사일 | 5,488 |
| 외교 | 3,755 | 정책 | 3,086 | APEC | 2,070 | 정상회담 | 3,949 | 트럼프 | 5,122 |
| 장관 | 3,698 | 장관 | 2,805 | 회담 | 2,062 | 미사일 | 3,709 | 외교 | 4,488 |
| 회담 | 3,396 | EU | 2,737 | EU | 2,049 | 회담 | 3,571 | 유엔 | 4,136 |
| 정치 | 2,994 | 회담 | 2,678 | 정상 | 2,032 | 외교 | 3,484 | 아세안지역 안보포럼 | 4,051 |
| 정상 | 2,627 | 외교부 | 2,368 | 외교 | 1,932 | 사드배치 | 3,271 | ARF | 3,897 |
| 청와대 | 2,485 | 정치 | 2,269 | 청와대 | 1,900 | 대북 | 3,060 | 도발 | 3,743 |
| 동아시아 | 2,227 | 청와대 | 2,202 | 외교부 | 1,764 | 북핵 | 3,038 | 회담 | 3,589 |
| 유럽연합 | 2,080 | 외교 | 1,966 | 정치 | 1,654 | 유엔 | 3,004 | 외교부 | 3,547 |
| APEC | 2,028 | 유럽연합 | 1,772 | 국회 | 1,544 | 정상 | 2,930 | 사드 | 3,436 |
| ARF | 1,818 | APEC | 1,662 | G20 | 1,537 | 청와대 | 2,753 | 김정은 | 3,114 |
| 외교부 | 1,798 | 통일 | 1,578 | 시진핑 | 1,528 | 외교부 | 2,662 | 박근혜 | 3,089 |

1.2. 경제적 측면(경제·무역·투자)

[표 17 동남아 키워드 랭킹 분석 : 경제·무역·투자]

| 2012,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 서비스 | 23,020 | 판매 | 11,428 | 서비스 | 12,568 | 서비스 | 14,318 | 서비스 | 15,614 |
| 진출 | 15,957 | 서비스 | 10,908 | 판매 | 9,259 | 브랜드 | 12,148 | 기업 | 9,253 |
| 기업 | 14,915 | 진출 | 8,297 | 경제 | 8,705 | 기업 | 10,950 | 진출 | 9,012 |
| 경제 | 14,068 | 자동차 | 8,214 | 기업 | 8,583 | 진출 | 10,524 | 브랜드 | 8,776 |
| 수출 | 12,885 | 경제 | 7,735 | 제품 | 8,159 | 제품 | 10,496 | 상품 | 8,420 |
| 판매 | 12,422 | 생산 | 7,220 | 상품 | 8,094 | 판매 | 10,031 | 판매 | 8,307 |
| 발전 | 12,336 | 기업 | 7,186 | 브랜드 | 8,090 | 수출 | 9,074 | 제품 | 8,077 |
| 투자 | 12,011 | 수출 | 7,089 | 생산 | 8,023 | 상품 | 8,842 | 수출 | 7,642 |
| 상품 | 11,838 | 상품 | 7,026 | 진출 | 7,903 | 투자 | 8,027 | 수입 | 6,909 |
| 생산 | 11,750 | 발전 | 6,994 | 발전 | 7,675 | 경제 | 7,977 | 투자 | 6,632 |
| 제품 | 11,642 | 금융 | 6,887 | 수출 | 7,012 | 발전 | 7,505 | 경제 | 5,960 |
| 자동차 | 11,107 | 제품 | 5,731 | 투자 | 6,573 | 생산 | 7,448 | 발전 | 5,932 |
| 금융 | 8,164 | 투자 | 5,440 | 건설 | 5,387 | 시스템 | 4,845 | 생산 | 5,871 |
| 건설 | 7,221 | 인구 | 4,366 | 인구 | 4,869 | 건설 | 4,476 | 수요 | 3,794 |
| 브랜드 | 7,190 | 수입 | 4,157 | 수입 | 3,905 | 매출 | 4,375 | 동남아수출 | 3,793 |
| 인구 | 6,293 | 건설 | 3,857 | 산업 | 3,117 | 인구 | 4,303 | 삼양 | 3,751 |
| 수입 | 5,456 | 공장 | 3,001 | 수요 | 3,088 | 수입 | 3,718 | 매출 | 3,628 |
| 수요 | 5,242 | 브랜드 | 2,456 | 시스템 | 2,577 | 산업 | 3,364 | 인구 | 3,575 |
| 매출 | 5,116 | 수요 | 2,371 | 시설 | 2,452 | 수요 | 3,242 | 건설 | 3,130 |
| 산업 | 4,577 | 시설 | 2,262 | 경제적 | 2,343 | 페이스북 | 2,911 | 네이버 | 3,099 |

[표 18 아세안 키워드 랭킹 분석 : 경제·무역·투자]

| 2012,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 경제 | 9,551 | 경제 | 6,448 | 경제 | 6,777 | 경제 | 7,076 | 수출 | 6,780 |
| 투자 | 7,661 | 수출 | 5,366 | 투자 | 5,630 | 기업 | 6,618 | 기업 | 6,461 |
| 수출 | 7,166 | 투자 | 5,151 | 기업 | 5,449 | 투자 | 6,084 | 경제 | 6,272 |
| 기업 | 6,298 | FTA | 5,114 | 수출 | 5,428 | 수출 | 5,636 | 투자 | 5,412 |
| 서비스 | 5,490 | 기업 | 5,056 | 서비스 | 5,044 | 서비스 | 4,570 | 서비스 | 5,266 |
| FTA | 5,094 | 서비스 | 4,986 | FTA | 4,310 | 진출 | 4,554 | 진출 | 4,533 |
| 발전 | 5,037 | 발전 | 3,893 | 진출 | 4,265 | 발전 | 4,311 | 발전 | 4,341 |
| 진출 | 4,289 | 자유무역 협정 | 3,237 | 발전 | 4,165 | 인프라 | 3,636 | 상품 | 3,804 |
| 인프라 | 3,658 | 진출 | 3,217 | 인프라 | 3,594 | 상품 | 3,334 | FTA | 3,373 |
| 상품 | 3,562 | 인프라 | 2,992 | 상품 | 3,570 | 제품 | 3,130 | 제품 | 3,189 |
| 수입 | 3,511 | 수입 | 2,918 | 건설 | 3,339 | 산업 | 3,013 | 산업 | 3,046 |
| 자유무역 협정 | 3,224 | 상품 | 2,538 | 산업 | 2,860 | 건설 | 2,675 | 인프라 | 3,036 |
| 산업 | 3,178 | 제품 | 2,436 | 자유무역 협정 | 2,803 | 생산 | 2,568 | 인구 | 2,850 |
| 자동차 | 3,097 | 산업 | 2,396 | 제품 | 2,726 | FTA | 2,517 | 수입 | 2,849 |
| 건설 | 3,061 | 생산 | 2,171 | 수입 | 2,556 | 수입 | 2,279 | 생산 | 2,619 |
| 제품 | 2,791 | 건설 | 2,039 | 인구 | 2,480 | 판매 | 2,246 | 무역 | 2,567 |
| 생산 | 2,773 | 자동차 | 1,971 | 생산 | 2,355 | 인구 | 2,022 | 판매 | 2,388 |
| 무역 | 2,692 | 교역 | 1,855 | APEC | 2,070 | 수요 | 2,003 | 수요 | 2,318 |
| 인구 | 2,361 | 인구 | 1,702 | 무역 | 2,028 | 무역 | 1,801 | 브랜드 | 2,038 |
| 수요 | 2,343 | APEC | 1,662 | 자동차 | 1,597 | 브랜드 | 1,798 | 자유무역 협정 | 1,991 |

1.3. 관광적 측면(관광·여행)

[표 19 동남아 키워드 랭킹 분석 : 관광·여행]

| 2012,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 여행 | 22,165 | 카지노 /바카라 | 243,275 | 여행 | 17,555 | 여행 | 17,533 | 여행 | 14,998 |
| 호텔 | 15,193 | 여행 | 18,908 | 호텔 | 8,079 | 호텔 | 6,524 | 관광 | 8,284 |
| 자동차 | 11,107 | 호텔 | 13,224 | 공항 | 4,059 | 동남아여행 | 6,175 | 성매매 | 7,927 |
| 여행지 | 8,673 | 항공권 | 10,722 | 동남아여행 | 3,923 | 공항 | 3,287 | 이동성매매 | 7,105 |
| 항공사 | 6,962 | 여행지 | 9,078 | 관광 | 3,782 | 관광 | 3,135 | 동남아여행 | 6,646 |
| 항공기 | 6,105 | 자동차 | 8,214 | 숙소 | 3,777 | 해외여행 | 3,010 | 관광객 | 6,273 |
| 공항 | 5,026 | 항공사 | 6,821 | 비행기 | 3,350 | 비행기 | 2,704 | 호텔 | 6,236 |
| 투어 | 5,004 | 항공기 | 5,573 | 버스 | 2,998 | 숙소 | 2,499 | 유흥업소 | 4,745 |
| 관광 | 4,757 | 여행사진 | 4,911 | 해외여행 | 2,445 | 성매매 | 2,270 | 해외여행 | 2,979 |
| 여행사진 | 4,677 | 비행기 | 4,292 | 여행지 | 2,369 | 관광객 | 2,111 | 패키지 | 2,790 |
| 자유여행 | 4,635 | 에어아시아 | 4,220 | 관광객 | 2,266 | 지도 | 1,913 | 공항 | 2,684 |
| 비행기 | 4,389 | 인물사진 | 4,081 | 지도 | 2,245 | 배낭여행 | 1,910 | 여행지 | 2,540 |
| 대한항공 | 4,086 | 선글래스 | 4,059 | 배낭여행 | 1,865 | 여행지 | 1,897 | 비행기 | 2,399 |
| 인물사진 | 3,993 | 관광 | 3,948 | 자동차 | 1,860 | 항공권 | 1,712 | 포르노 | 2,392 |
| 선글래스 | 3,927 | 대한항공 | 3,933 | 후기 | 1,716 | 후기 | 1,526 | 호주투어 | 2,203 |
| 관광객 | 3,516 | 공항 | 3,819 | 투어 | 1,550 | 버스 | 1,505 | 유럽여행 | 2,191 |
| 버스 | 3,383 | 특가항공권 | 3,629 | 쇼핑 | 1,495 | 자동차 | 1,383 | 항공권 | 2,176 |
| 숙소 | 3,147 | 숙소 | 3,086 | 항공권 | 1,492 | 쇼핑 | 1,226 | 쇼핑 | 2,057 |
| 아시아나 | 3,087 | 아시아나 | 3,081 | 차량 | 1,425 | 여행사 | 1,106 | 숙소 | 2,048 |
| 지도 | 2,956 | 해외여행 | 2,758 | 추억 | 1,390 | 투어 | 1,091 | 투어 | 1,988 |

[표 20 아세안 키워드 랭킹 분석 : 관광·여행]

| 2012,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 자동차 | 3,097 | 자동차 | 1,971 | 자동차 | 1,597 | 자동차 | 1,789 | 자동차 | 1,793 |
| 순방 | 2,065 | 기념 | 1,115 | 순방 | 1,118 | 호텔 | 1,105 | 호텔 | 1,330 |
| 선박 | 829 | 호텔 | 894 | 호텔 | 864 | 순방 | 1,039 | 순방 | 1,262 |
| 호텔 | 816 | 순방 | 753 | 기념 | 682 | 관광 | 778 | 관광 | 810 |
| 관광 | 602 | 여행 | 699 | 관광 | 591 | 공항 | 653 | 관광객 | 799 |
| 기념 | 463 | 선박 | 669 | 철도 | 558 | 선박 | 590 | 기념 | 744 |
| 여행 | 453 | 관광 | 593 | 차량 | 461 | 여행 | 482 | 차량 | 637 |
| 공항 | 391 | 차량 | 489 | 공항 | 457 | 교통 | 440 | 선박 | 545 |
| 철도 | 370 | 관광객 | 434 | 관광객 | 419 | 차량 | 439 | 공항 | 479 |
| 관광객 | 370 | 공항 | 285 | 여행 | 418 | 기념 | 386 | 여행 | 435 |
| 항공기 | 364 | 승용차 | 279 | 비행 | 388 | 비행기 | 376 | 이슬람 | 361 |
| 차량 | 319 | 철도 | 252 | 교통 | 383 | 관광객 | 368 | 지도 | 352 |
| 지도 | 312 | 버스 | 251 | 이슬람 | 357 | 지도 | 350 | 숙소 | 352 |
| 교통 | 183 | 교통 | 248 | 선박 | 309 | 철도 | 348 | 철도 | 335 |
| 항공 | 176 | 이슬람 | 227 | 항공기 | 243 | 이슬람 | 327 | 교통 | 332 |
| 비행기 | 166 | 대한항공 | 192 | 승용차 | 235 | 숙소 | 252 | 항공기 | 247 |
| 이슬람 | 163 | 항공기 | 184 | 버스 | 204 | 항공기 | 232 | 면세점 | 172 |
| 승용차 | 143 | 지도 | 174 | 항공 | 197 | 비행 | 232 | 항공권 | 154 |
| 비행 | 143 | 항공 | 143 | 고속철 | 176 | 휴양지 | 221 | 비행 | 152 |
| 숙소 | 119 | 비자 | 143 | 지하철 | 159 | 버스 | 201 | 항공 | 150 |

1.4. 사회적 측면(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표 21 동남아 키워드 랭킹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2012,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 문화 | 12,340 | 음식 | 8,753 | 역사 | 9,382 | 문화 | 7,726 | 문화 | 6,029 |
| 역사 | 11,321 | 역사 | 8,097 | 음식 | 8,706 | 음식 | 6,918 | 영어 | 6,011 |
| 음식 | 10,274 | 문화 | 7,993 | 문화 | 8,123 | 역사 | 6,805 | 음식 | 5,974 |
| 행사 | 8,429 | 사회 | 5,314 | 사회 | 4,809 | 교육 | 4,660 | 역사 | 5,252 |
| 사회 | 7,632 | 영어 | 4,139 | 행사 | 4,477 | 사회 | 4,634 | 행사 | 4,983 |
| 영어 | 6,057 | 행사 | 4,132 | 영어 | 4,331 | 행사 | 4,181 | 교육 | 4,202 |
| 교육 | 5,950 | 요리 | 3,998 | 교육 | 3,848 | 영어 | 3,713 | 사회 | 3,825 |
| 영화 | 5,390 | 과일 | 3,427 | 요리 | 3,550 | 영화 | 2,366 | 카레 | 3,759 |
| 전통 | 4,989 | 교육 | 3,229 | 전통 | 2,848 | 다문화 | 2,303 | 매운맛 | 3,755 |
| 요리 | 4,572 | 전통 | 3,143 | 고기 | 2,797 | 전통 | 2,156 | 인도카레 | 3,739 |
| FESTIVAL | 3,964 | 영화 | 3,123 | 식사 | 2,782 | 공부 | 2,039 | 불닭 | 3,739 |
| 식사 | 3,765 | 고기 | 2,742 | 그림 | 2,767 | 그림 | 1,859 | 얼얼 | 3,736 |
| 공부 | 3,567 | 공부 | 2,720 | 영화 | 2,713 | 식사 | 1,834 | 불닭소스 | 3,735 |
| 그림 | 3,325 | 식사 | 2,698 | 과일 | 2,652 | 한류 | 1,830 | 커리불닭 볶음면 | 3,735 |
| 과일 | 3,157 | 커피 | 2,458 | 커피 | 2,229 | 요리 | 1,789 | 카레맛 | 3,735 |
| 커피 | 3,074 | 그림 | 2,120 | 종교 | 2,109 | 다문화 결사반대 | 1,677 | 스파이스 한 | 3,735 |
| 고기 | 3,013 | 다문화 결사반대 | 2,102 | 공부 | 2,071 | 종교 | 1,673 | 열대과일 | 2,742 |
| 열매 | 2,596 | 이벤트 | 1,795 | 맥주 | 1,834 | 과일 | 1,554 | 영화 | 2,725 |
| 노래 | 2,433 | 열매 | 1,616 | 불교 | 1,794 | 게임 | 1,438 | 올림픽 | 2,023 |
| 식품 | 2,397 | 레스토랑 | 1,604 | 언어 | 1,716 | 오렌지 | 1,380 | 번역 | 2,0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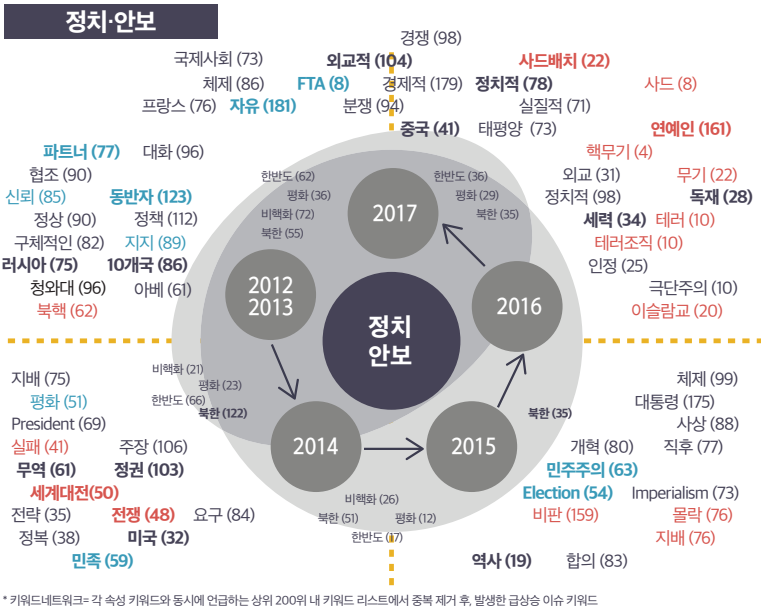
[표 22 아세안 키워드 랭킹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 2012,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키워드 | 빈도 |
| 행사 | 3,140 | 이벤트 | 10,113 | 행사 | 3,734 | 행사 | 3,422 | 행사 | 3,529 |
| 문화 | 2,851 | 행사 | 3,813 | 문화 | 2,371 | 문화 | 2,622 | 문화 | 2,465 |
| 사회 | 2,260 | 문화 | 2,817 | 교육 | 1,683 | 교류 | 1,778 | 역사 | 1,838 |
| 역사 | 1,905 | 아세안영 화제 | 2,687 | 역사 | 1,640 | 교육 | 1,778 | 교류 | 1,744 |
| 교류 | 1,660 | 사회 | 1,772 | 발효 | 1,628 | 역사 | 1,653 | 사회 | 1,628 |
| 교육 | 1,463 | 교육 | 1,625 | 교류 | 1,627 | 사회 | 1,648 | 교육 | 1,543 |
| 발효 | 1,104 | 역사 | 1,585 | 사회 | 1,364 | 발효 | 1,217 | 발효 | 1,417 |
| 포럼 | 827 | 교류 | 1,536 | 포럼 | 992 | 행사장 | 782 | 음식축제 | 1,074 |
| 한류 | 589 | 발효 | 1,407 | 한류 | 732 | 포럼 | 779 | 한류 | 853 |
| 간담회 | 578 | 영화 | 891 | 세미나 | 599 | 한류 | 771 | 음식 | 732 |
| 전통 | 507 | 한류 | 666 | 전통 | 428 | 게임 | 562 | 영화 | 643 |
| 식품 | 479 | 전통 | 616 | 영어 | 417 | 전시회 | 485 | 전통 | 564 |
| 공연 | 426 | 전시회 | 606 | 상담 | 362 | 전통 | 469 | 간담회 | 558 |
| 영화 | 375 | 공연 | 532 | 이슬람 | 357 | 영화 | 465 | 식품 | 545 |
| 역사적 | 370 | 음식 | 510 | SJ스쿨 | 331 | 식품 | 461 | 국제관광전 | 519 |
| 영어 | 365 | 포럼 | 503 | 영화 | 329 | 공연 | 454 | 무료입장 | 511 |
| 세미나 | 346 | 게임 | 428 | 역사적 | 327 | 상담 | 425 | 참가예정 | 511 |
| 축제 | 297 | 축제 | 397 | 간담회 | 323 | 세미나 | 414 | 사전등록시 | 511 |
| 언어 | 287 | 영어 | 389 | 음식 | 303 | 간담회 | 373 | 포럼 | 488 |
| 음식 | 245 | 세미나 | 378 | 식품 | 297 | 음식 | 350 | 공연 | 4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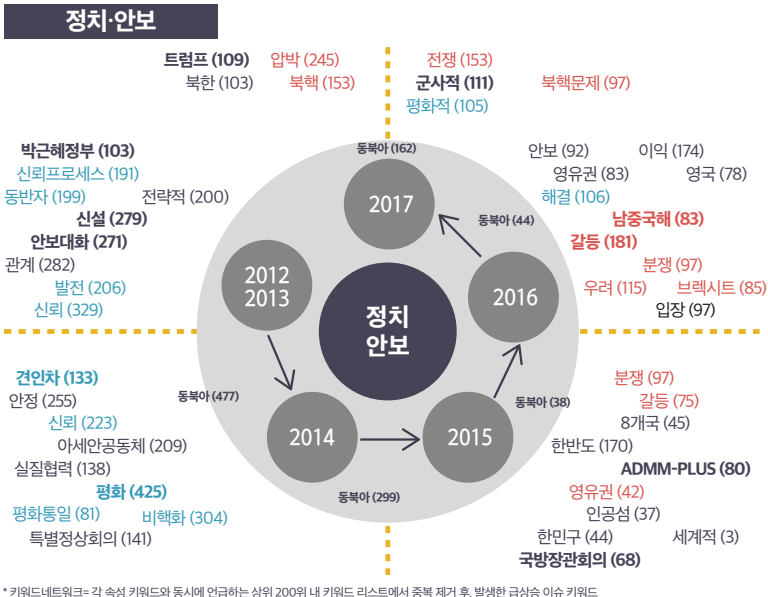
2. 동남아 vs 아세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2.1. 정치적 측면(정치·안보)

[그림 10 동남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정치·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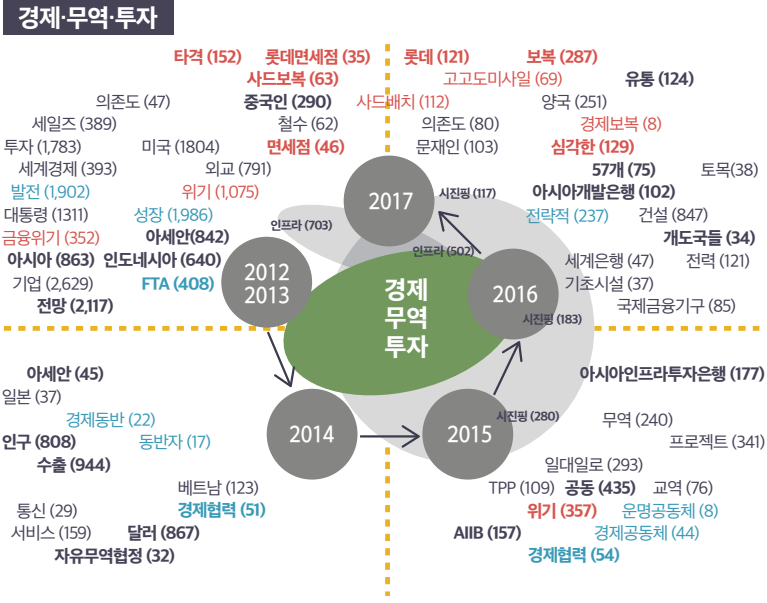


[그림 11 아세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정치·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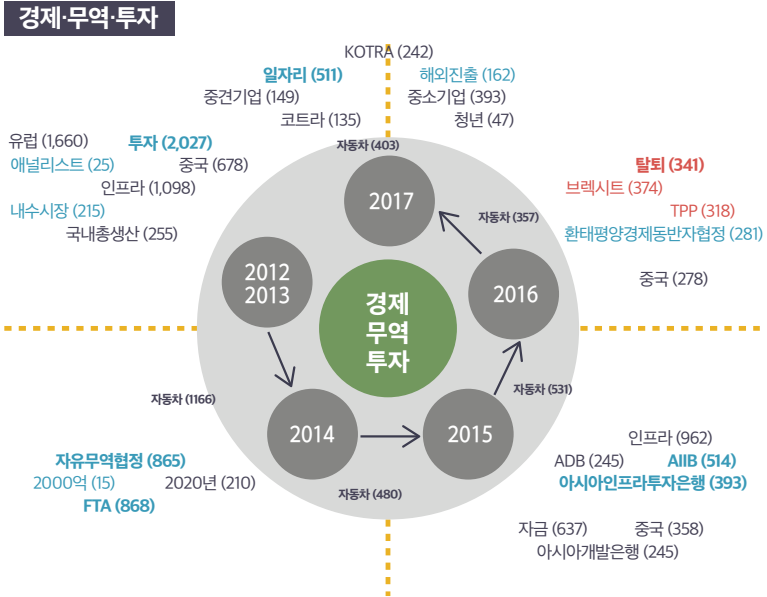
2.2. 경제적 측면(경제·무역·투자)

[그림 12 동남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경제·무역·투자]



* 키워드네트워크= 각 속성 키워드와 동시에 언급하는 상위 200위 내 키워드 리스트에서 중복 제거 후, 발생한 금상승 이슈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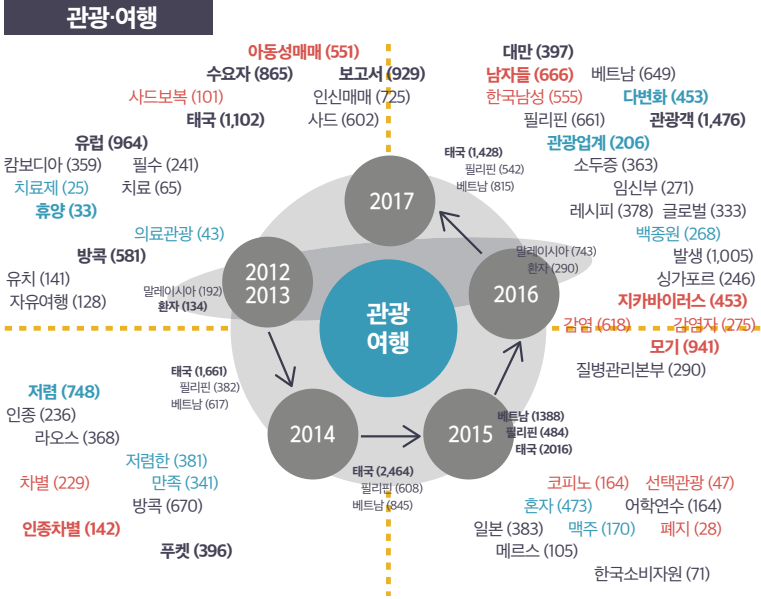
[그림 13 아세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경제·무역·투자]



* 키워드네트워크= 각 속성 키워드와 동시에 언급하는 상위 200위 내 키워드 리스트에서 중복 제거 후, 발생한 금상승 이슈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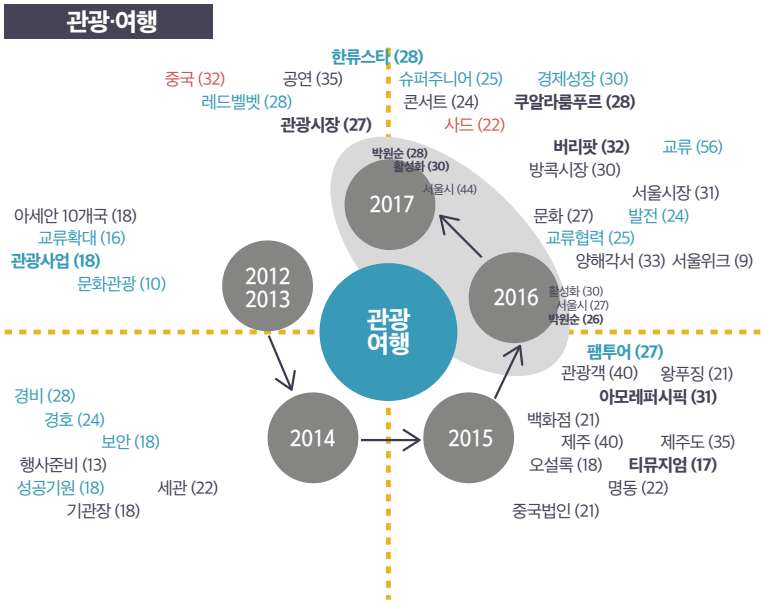
2.3. 관광적 측면(관광·여행)

[그림 14 동남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관광·여행]



* 키워드네트워크는 각 속성 키워드와 동시에 언급하는 상위 200위 내 키워드 리스트에서 중복 제거 후, 발생한 급상승 이슈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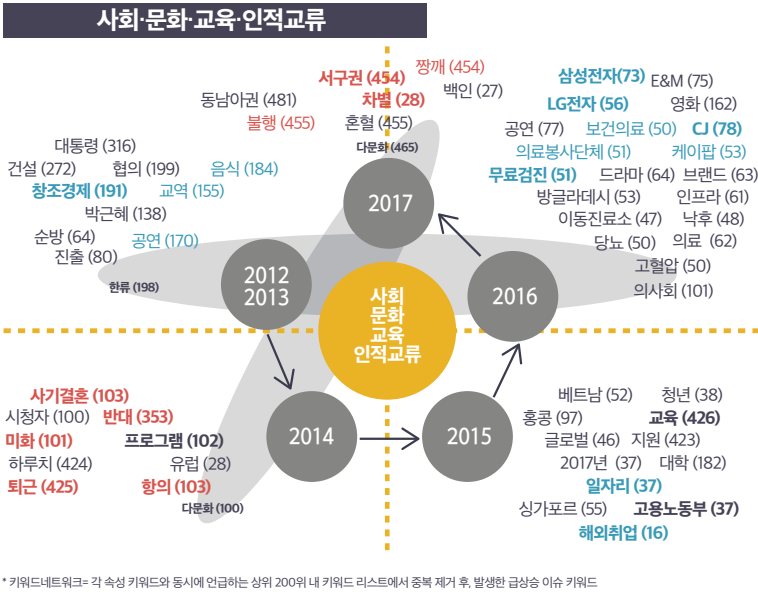
[그림 15 아세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관광·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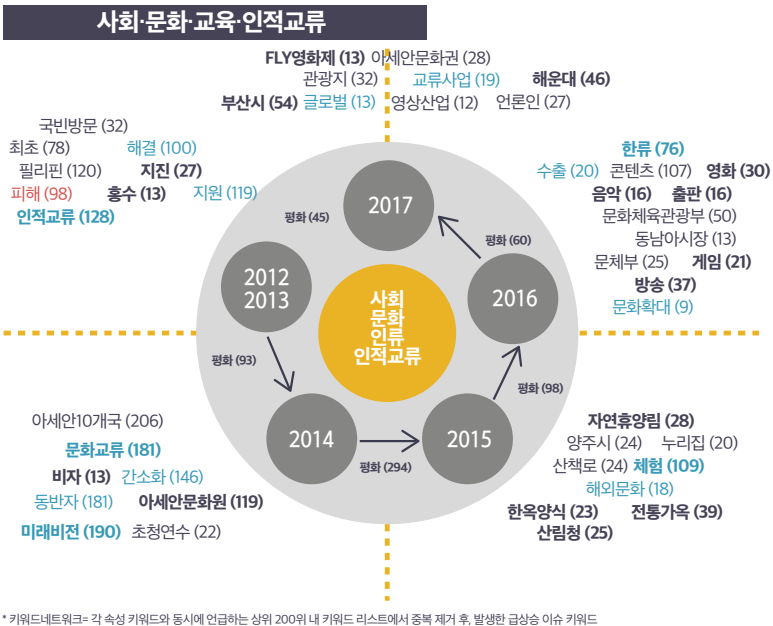
* 키워드네트워크는 각 속성 키워드와 동시에 언급하는 상위 200위 내 키워드 리스트에서 중복 제거 후, 발생한 급상승 이슈 키워드

2.4. 사회적 측면(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그림 16 동남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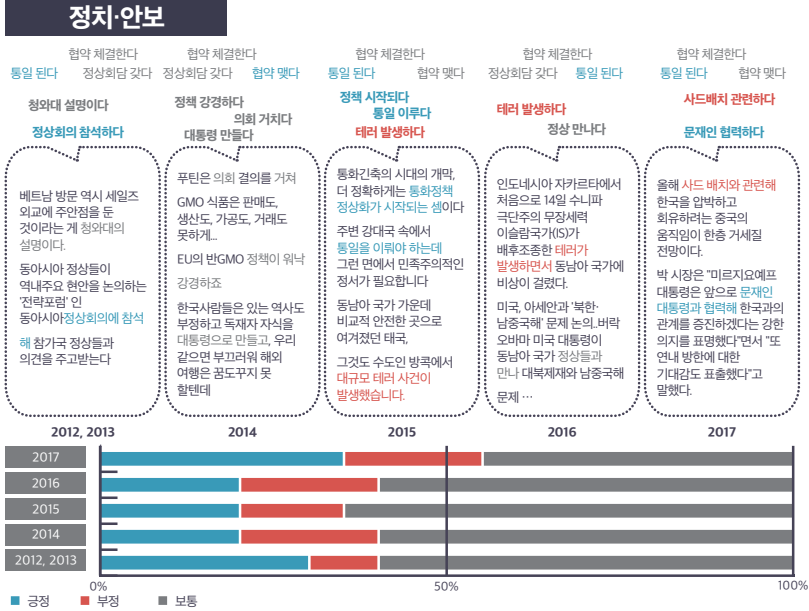
[그림 17 아세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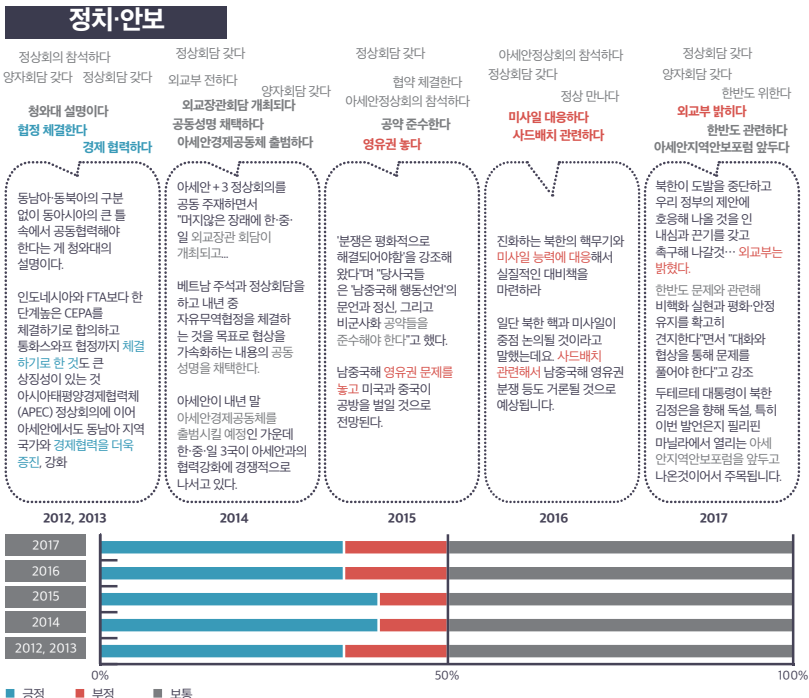
3. 동남아 vs 아세안 감성 분석

3.1. 정치적 측면(정치·안보)

[그림 18 동남아 감성분석 : 정치·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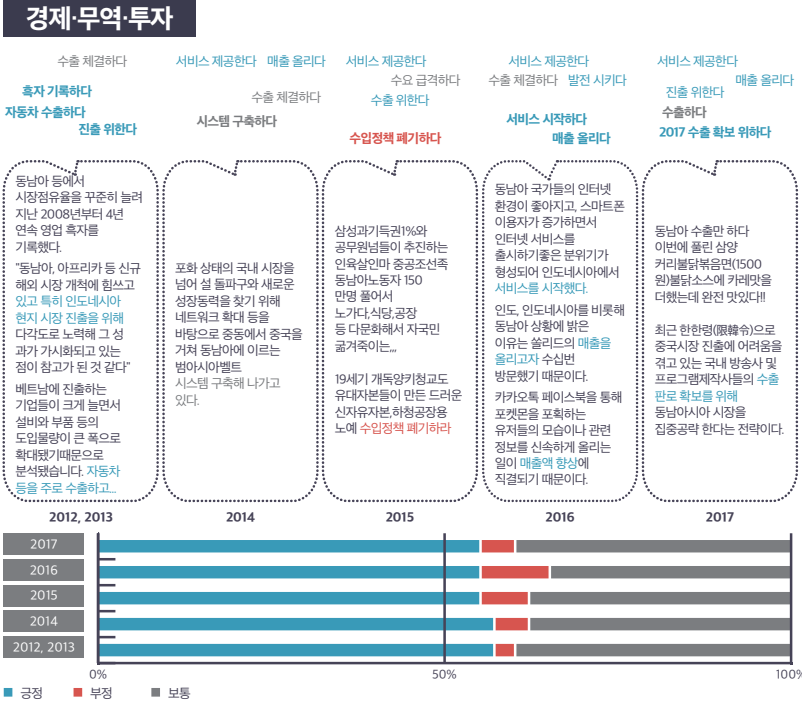


[그림 19 아세안 감성분석 : 정치·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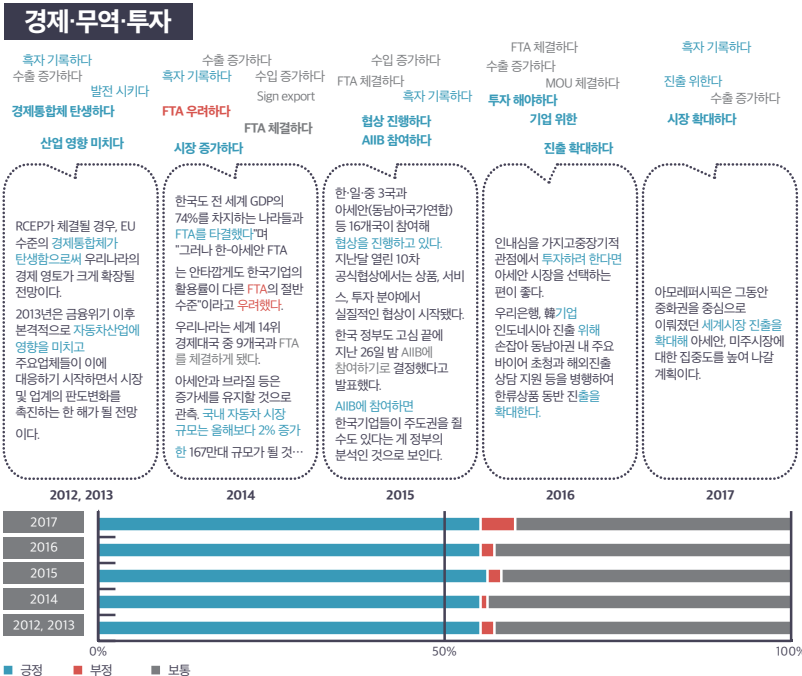


3.2. 경제적 측면(경제·무역·투자)

[그림 20 동남아 감성분석 : 경제·무역·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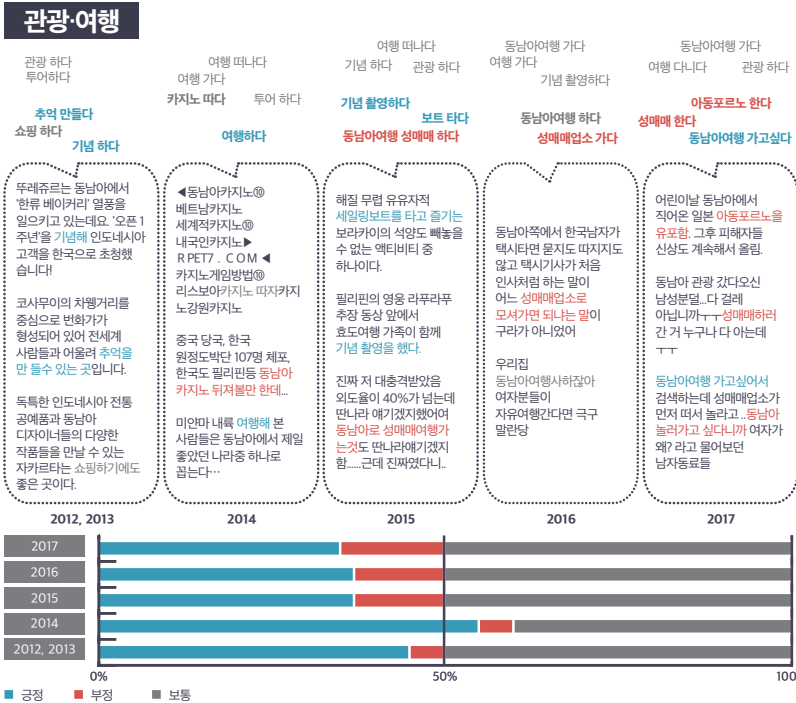


[그림 21 아세안 감성분석 : 경제·무역·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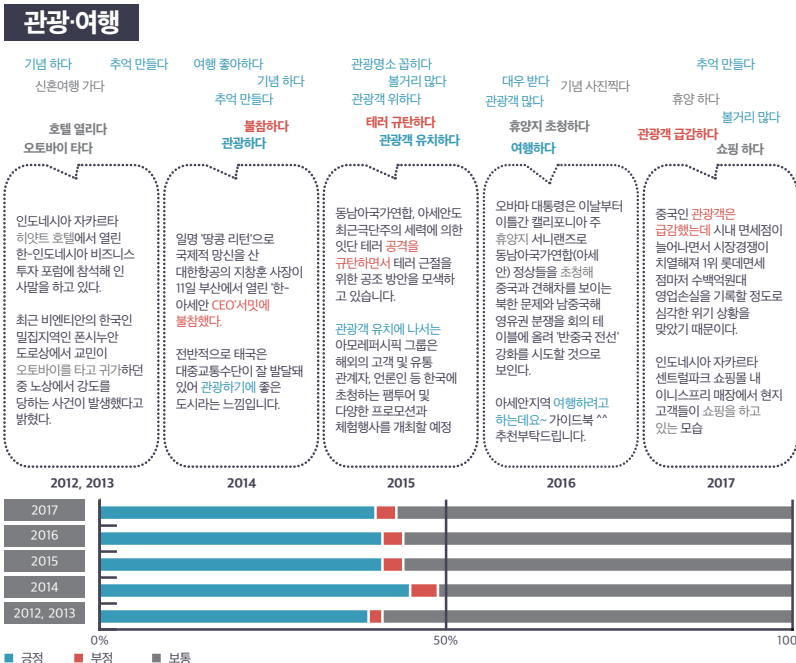


3.3. 관광적 측면(관광·여행)

[그림 22 동남아 감성분석 : 관광·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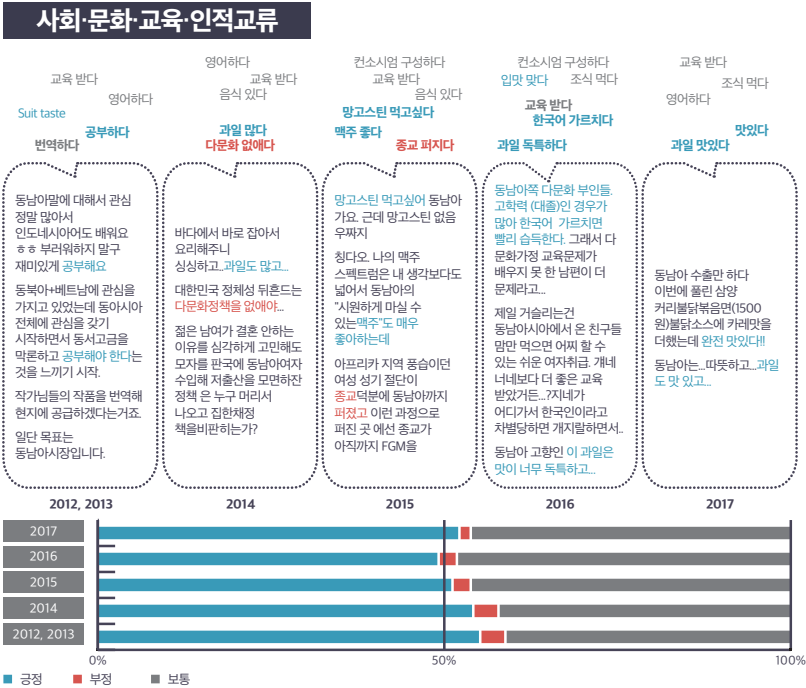


[그림 23 아세안 감성분석 : 관광·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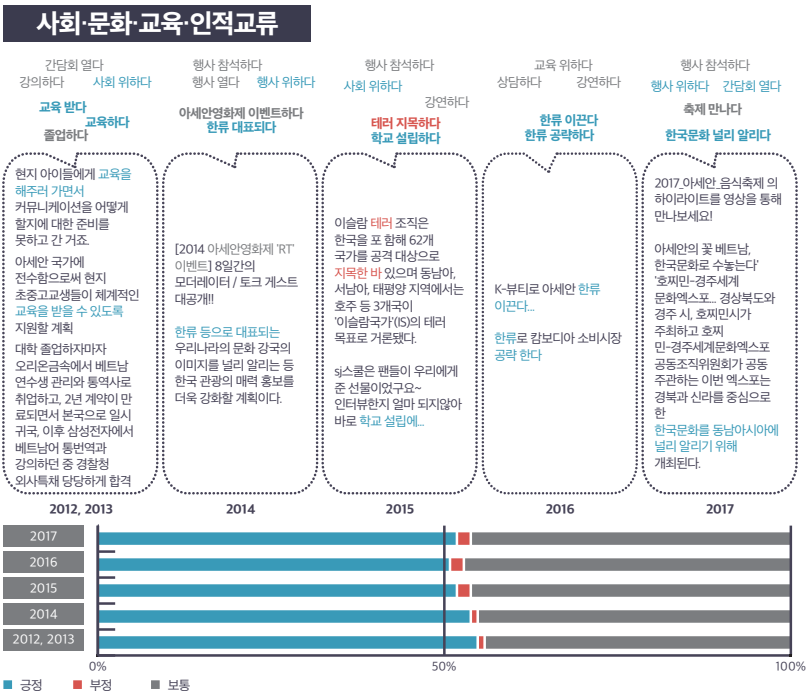


3.4. 사회적 측면(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그림 24 동남아 감성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그림 25 아세안 감성분석 : 사회·문화·교육·인적교류]





ASEAN-KOREA CENTRE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 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1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서명된 '한-아세안센터 설립 양해각서'가 2008년 12월 발효함에 따라 한-아세안센터가 설립되었고, 한-아세안 대화관계 20주년을 맞은 2009년 3월 13일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비전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적이고 진정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채널 역할

- 목표

한-아세안 파트너십 확대 문화·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아세안 통합 노력 지원

- 설립목적

한국과 아세안 간 교역증대, 투자촉진, 관광활성화, 문화·인적 교류 확대

- 활동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교역증대, 투자촉진, 관광활성화 및 문화·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회원국

한-아세안센터의 회원국은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즉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총 11개국입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Email info@aseankorea.org

Homepage www.aseankorea.org

E-library elibrary.aseankorea.org

Facebook facebook.com/akcsns

Instagram instagram.com/asean_korea_centre

Wordpress blog.aseankorea.org

Twitter twitter.com/akcsns

Youtube youtube.com/akcsns

국내 아세안 인식 조사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03300

9 791188 409167
ISBN 979-11-88409-16-7